

향토문화자료 2

내곡장 민謡

이인영·홍순석 엮음

龍仁文化院 附設
郷土文化研究會

표지 해설

○題字：林泉 閔 鏞 碩

○歸漁

小塘 李 在 寬 (1783~1837)

紙本水墨淡彩 畫帖 26.6×33.5 cm

李在寬은 字가 元剛, 號는 小塘. 용인 사람으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여, 그림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다. 특히 구름·초목·나는 새 등을 잘 그렸으며 초상화에 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憲宗 2년 (1836) 永興 瞻源殿의 太祖 御眞이 도적에 의해 훼손된 것을 復元, 그 공으로 登山鎭僉節制使가 되었으나 사직, 이듬해에 병사했다.

향토문화자료 2

넙크장 민궤

이인영·홍순석 엮음



龍仁文化院 附設
郷土文化研究會

祝 刊 辭

용인군수 崔 炳 鎬

먼저 향토문화자료집 『내 고장 民謠』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에 대한 뚜렷한 업적이 없었던 이 시점에서 『龍仁郡邑志』에 이어 『내 고장 民謠』를 출간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얼과 문화적 유산을 발굴, 보존하게 된 것은 龍仁人으로서 여간 다행히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우기 우리 고장의 향토자료를 우리 손으로 수집 정리하여 이렇게 책자로까지 꾸며 놓았으며, 이 작업에 관계한 여러분들이 모두 “내 고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신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 놓은 產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문화원장님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협조에 힘입은 바라고 하겠습니다.

귀중한 이 한권의 책이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조상들의 낙천적인 삶이나 흥겨움, 사랑, 애환 등을 이해하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과 조상의 얼을 되찾아 발전하는 용인의 嚮導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용인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 12월 1일

격 려 사

용인문화원장 金 正 根

내가 여기에 존재해 있음은 바로 자랑스런 조상들이 있고, 그분들의 빛나는 업적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운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의 일이 우리 마음 속에 생등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본 문화원의 부설기관인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내 고장 民謠』를 간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활동이 미진한 현실정에서 내 고장의 향토문화와 전통을 아끼는 이들이 모임을 이루어 『龍仁郡邑志』에 이어 『내 고장 民謠』를 발간하게된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이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웅변의 미덕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펼쳐진 <모심기 노래>, <베를노래>, <상여가> 그리고 수많은 동요들은 가히 우리 고장 사람들의 진실된 삶을 대변하는 웅변가의 미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흥을 찾아 노래하고, 故人の 죽음 역시도 단지 체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위해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옛 어르신들의 참된 생활상은 여러분들께 적지않은 마음의 양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내 고장 용인을 좀더 정확히 이해하고 익혀 자랑스런 龍仁人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하며, 이 책의 간행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崔炳鎬 군수님과 귀중한 자료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어주신 두분 편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1983년 12월 1일

발 간 사

향토문화연구회장 朴 鏞 益

그간 본회는 “우리의 것을 찾고, 알고, 가꾸자는 旗幟 아래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정리하여 소개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처 정립되지 못한 채 混迷를 거듭했던 우리 고장의 향토사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봄에는 향토문화 자료 제 1 집으로 『龍仁郡邑志』를 발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매월 정기적인 토론 및 답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이같은 일은 회원 자신들의 명예나 영리를 위해서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消滅되어 가는 향토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후세들에게 좀더 알찬 모습의 내 고장을 남겨주자는 一念에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제 2 집으로 발간하는 『내 고장 民謠』는 이같은 본 회의 취지를 더욱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내 고장 民謠』의 발간은 여러면에 있어 우리에게 보람된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 회 자체가 浮動의 상태에서 용인문화원 부설기관으로 安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보람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우기 우리 회원들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고장 여러 어르신네들, 심지어는 동리 꼬마들까지도 참여한 그야말로 全郡民의 기지와 맘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 고장 여러분들과의 共感帶를 형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고장의 향토사에 길이 남겨질 『내 고장 民謠』를 집필해 주신 李仁寧, 洪順錫 두분 회원의 노고에 致賀 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위

해 적극 지원해 주신 崔炳鎬 군수님, 金正根 원장님, 그리고 본 회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출판상의 모든 어려움을 지도, 수고해 주신 檀國大 出版部の 南爽純님께도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83년 12월 1일

머릿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기에 더욱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우리 주위엔 수없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만치 멀리 떨어져 사라져 가고 있음을 불현듯 깨달았을 때 무언가 아쉬움에 다시 찾아 간직하고 싶은 경우가 적지 않다.

어화 어흠차 찍었네야/어화 어흠차 찍었네야
얼싸 좋다 잘도 하니/어화 어흠차 찍었네야

내 고장 어느곳에서든지 들을 수 있었던 모심기 노래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이제는 일부러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단지 급진적으로 발전해온 매스컴의 영향만은 아니리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것이기에 모두가 소홀히 대했던 탓이라고 본다. 골목을 누비던 옛장수의 가윗 소리,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옛날 이야기, 그리고 빨래터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중한 것들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도 모른 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있었던 것까지 찾아보려는 의지로 길을 나선지도 올해로 꼭 10년이 된다. 그동안 내 고장의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미 세상을 달리던 노인들로부터 십지어는 동리 꼬마들까지도 우리의 안내자요, 협조자였으며 소중한 재원(材源)이기도 하였다. 내 고장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는 동안 우리는 언젠가 마루밑 어느 구석에서 잊었던 땀이 따위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더욱 그것이 소중한게 느껴지던 어릴적 그 어떤 감회처럼 삶의 고뇌와 유열이 끈끈하게 배어 있는 그 가락과 장단 속에서 우리의 것과 새롭게 만날 수 있었으며, 돌아와 그것들을 되뇌이며 음미하는 가운데서 잊혀졌던 화룻가의 따스함과 고향의 정감을 한껏 누릴 수 있었다. 온갖 어려

움 속에서도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고, 한편의 책자로까지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고향의 정겨움 때문이었다고 본다.

여기에 소개한 자료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중 일부만을 간추려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발딘지 못한 지역의 자료와 함께 후일 지면으로 소개할 생각이다.

이 조그만 책자를 꾸미는데도 적지않은 사람들의 협조와 노고를 끼쳐야 했다. 우선 자료의 채록과 수집에 적극 협조해주신 자료제공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출간케 해주신 최병호 군수님, 김정근 원장님, 그리고 박 용익 회장을 비롯 여러 회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작업에 내 고장 모든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우리의 애씀이 내 고장 향토문화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없는 기쁨이라고 하겠다.

계해년 저문 날에

노고산 기슭에서 편자 적음

일 러 두 기

1. 자료의 분류 및 배열은 『韓國民謠集』(任東權 篇)의 체계를 참고로 정리 하였다.
2. 내 고장의 지역적 특성 및 감정, 언어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가창자의 말 그대로를 최대한으로 살렸다(사투리, 발음 등).
3. 가사의 리듬을 고려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4. 각 노래의 후렴(後歎)은 처음에만 넣고 그 이후는 생략하였다(대체로 선창자가 두 귀절을 선창한 다음에 후렴을 부르며, 후렴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부름)
5. 가사 내용이 타지역과 비슷한 것이 있으나, 채집한 지역의 특수성 및 자료의 분포 등을 살피기 위해 그대로 수록하였다.
6. 민요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나, 내고장의 옛 노래라는 점에서 내방 가사 1 편, 개화기 가사 8 편을 함께 실었다.

차 례

축간사	용인군수 崔炳鎬	1
격려사	용인문화원장 金正根	2
발간사	용인향토문화연구회장 朴鏞益	3
머릿말		5
일러두기		7
① 노동요(勞動謠)		11
I. 남요(男謠)		13
모심기 노래 13 / 논매기 노래 24 / 상사타작 30 / 찍었네 타령 31		
/애벌매기 34 / 김매기 노래 35 / 풀노래 37		
2. 여요(女謠)		39
물레노래 39 / 벼들노래 44 / 방아타령 48 / 빨래노래 52 / 목화따기		
54 / 대추따기 54 / 나물캐기 55 / 뽕타령 56 / 부엌노래 57		
② 내방요(內房謠).....		59
시집살이 노래 61 / 사향가(思鄕歌) 67 / 사친가(思親歌) 68 /		
신세타령 72		
③ 연정요(戀情謠).....		75
연정가(戀情歌) 77 / 첩요(妾謠) 81 / 여출(女出) 81 / 노총각 노래		
82 / 홀아비 소리 82		
④ 자장가 및 희아요(戲兒謠).....		85
자장가 87 / 세상달공 95 / 희아요(戲兒謠) 100		

⑤ 향두가(香頭歌)	105
상여노래 107 / 회방아 타령 125 / 회심곡 138	
⑥ 성조가(成造歌)	141
⑦ 타령(打令) 의	155
장타령 157 / 들레타령 159 / 담바귀타령 160 / 범벅타령 162 / 두전 뒤풀이 165 / 구(九)자 풀이 167 / 절개가 168 / 두견화가 168 / 봄 소리 169 / 양류가(楊柳歌) 170 / 행실제 171 / 박연폭포 172 / 사발 가 173 / 오돌또기 174 / 지계동발 175 / 노인가 176 / 원가(怨歌) 177	
⑧ 동요(童謠)	179
1. 유희요(遊戱謠)	181
2. 동·식물요(動植物謠)	185
3. 풍소요(諷笑謠) 및 기타	188
⑨ 내방가사	193
⑩ 개화기 가사(開化期歌辭)	205
충군가(忠君歌) 207 / 효친가(孝親歌) 210 / 용사가(隆師歌) 213 / 형제가(兄弟歌) 214	
■ 자료해설	
내 고장 민요의 개관	215
■ 자료제공자 명단	219

여 백

① 노동요(勞動謠)

〈노동요〉는 작업요라고도 하며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박자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로서, 일의 능률 및 행동의 통일을 위해 불려진다. 모심기 노래, 김매기 노래, 어부노래 등과 같은 남요(男謠)와 길쌈노래, 베틀노래, 물레노래 등의 여요(女謠)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여 백

1. 남요(男謠)

모심기 노래

얼털털 상사되야
압들모는 찰벼심고
〔후렴〕 얼털털 상사되야
건너들논은 유신벼심고
뒗뜰논은 공양도심고
간고루 반듯이심세
이논모를 심어서가꾸며
사배출 수확하오리다
금년가을 수확하면
사화년풍 하오리다

※ 1979. 2. 17. 양재옥(남·52세·농업)
포곡면 영문리 427.

모심기 노래

어얼털털 상사되야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려
여보시오 또농부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한통종자 싹이나서
만고객의 열매맺어
슬기로운 이농사를
하늘땅에 조화르다
이농사를 지어서
어느누구 주려하나
노인부모 봉양하고
젊은아내 사랑하며
어린자손 잘키우며
화목한가정 이뤄보세

※ 1978. 6. 5. : 공회석(남·39세·농업)
내사면 주북리 임원 부락

모심기 노래

여기저기 심어도 양식삼배출짜라 심어라.
〔후렴〕 어덜덜덜 상사되야
여기도 방인데 저기저기도 방이다
이방에 들어갈려면 모흙을 들고 들어가라
이논뱀이가 스무마지긴대 반달만큼 남았구나

이논뱀이 얼른심고 담배참하자
이논뱀이 얼른심고 자리뜯하자
점심참이 늦어가네 어털털털 상사되야.

※ 1979. 2. 17. 김정순(남·75세·농업)
용인읍 남리 300 평옥부락

모심기 노래

동지섯달 다 지나고
이삼사월 당도했네
여보소 농부들 말들어
세마지기 논빼미
일꾼들이 논을갈어
일추월장 모를찌울때
거름주고 모를질러
장승하게 잘자랐네
우리농부 세마지기 논빼미서
한줄로 늘어서 안저모를찌
왼손에 들고 바른손에 짚을쥐고
휘휘감어 돌일 때
닷마지기 논자리에 집어던지네
뭇찌고쉬세 여보게 농부들
담배참을 먹었으니 일을하세
논에들께 우리 여러농부가
모참들고 노래하세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노래하며 모를심세
기분 좋고 흥이나네
여보소 주인양반
농부가 기분 좋으니
술한잔 가져오지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땃마지기 논빼미 심었으니 담배참하세.
세마지기 못자리 남았네
빨리심고 밥을먹세
반달같이 남았으니
제가무슨 반달인가
초승달이 반달일세

※ 1979. 6. 손광득(남·85세·농업)
이동면 묵리 장촌

모심기 노래

농부덜이 이때가 어드때냐
하오월 만간이라
농부덜이 일자로 늘어서서
모를꼬져 나가면서
농부가를 부른다
얼얼얼 상사드야
상상부사가 등부살래

먼데사람은 보기가 좋고
가까운사람은 듣기가 좋아

※1979. 2. 13. 김순철(여·85세)
용인읍 마평리 삼박곡

모심기 노래

심었네 꽃었네 여기두저기두 또하나
이력저력 심다보니 반달만큼 남았네
네가어찌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이력저력 심드래도 삼백출짜리로 심어두게.

※ 1979. 4. 8. 안천희(남·농업)
내사면 제일리 산매동(새말)

모심기 노래

백사지 땅에 모를심어
장잎이 훨훨 나왔으니
노래부르고 춤을추면서
힘을드려 일해보세
여러농부 일군들아
만곶쟁이 열매맺는

18 □ 노동요(勞動謠)

하느님께 은혜로다
여러농부 일꾼들아
배고프다 서러말구
부지런히 일하여서
만족하게 차려보세
일시잠깐 쉬지말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나라충성 다해보세

※ 1979. 4. 3. 전만길(남·68세·농업)
모현면 매산리 진해촌

모심기 노래

한톨기 싹이나서
만고장에 열매맺는
신기로운 이농사는
농사밖에 또있는가
어하농사 일꾼들아
어하 농부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열심으로 농사지어 배블러보세

※ 1978. 4. 22. 이재철(남·63세·농업)
포곡면 신원 2리

모심기 노래

봄이왔네 봄이왔네
농사발전 시켜보세
한톨종자 싹이나서
만곱쟁이 열매를맺는
이농사는 하늘땅에 조화로세
비바람을 무릅쓰고
힘을합하며 우리농부 일이로다
첫번 심은모는 토지지신 성남이요
두번째 심은모는 조상님의 상남이요
세번째 심은모는 부모님의 상남이라
이논에 심는모는 삼백줄이요
저논에 심는모는 사백줄자리요
이논저논 다심고보니
저건너 갈비봉에
비가묻어 돌아온다
저농부 거등보라
우장을 허리에 두르고
모내기 힘을쓰네
부지런히 모를심고
집에가 부모처자 만나보세

※ 1978. 5. 이 창(남·62세·농업)
내사면 주제리

모심기 노래

여기저기 심어도
오백출짜리로 심으세
열마지기 논바닥이
반달같이 남았다

※ 1976. 6. 李元泰外(남·45~70세·농업)
모현면 왕산리 관청

모심기 노래

여기도하나 저기도하나
여기저기 꽃드래도
방만고르게 심어주게
여기저기 꽃드래도
삼배출짜리만 꽃아주소

※ 1976. 6. 李元泰 外(남·45~70세·농업)
모현면 왕산리 관청

모심기 노래

일년농사 지을적에
 산으로들었다 산다메기
 들로들었다 들충배
 많이먹었다 등지기
 못먹었다 흘쩍배
 대골안에는 의전찰
 대골밖에는 상무찰
 질질푸드득 쟁끼찰
 잉그렁덩그렁 양푼찰
 울콩줄콩 친대콩
 만리타고 강낭콩
 두수공방 홀에비콩
 소두대두 적두팔
 일년농사 다지었네
 곰같은 비비눔들
 지게에 바치어 저디라고
 앵무같은 조화기
 또바리에 바치어 여드리고
 상머슴 접머슴
 우역뿌리야 좌역뿌리야
 비일베기야 차돌베기야
 노부걸어 쌍쌍걸어
 나갈때는 빈발이요
 들어올때는 참발이요
 시발굽에 늘어진꼭식

22 □ 노동요(勞動謠)

치마꼬리 싸가주고
구구불러 닭도주고
앞으로걸었다 앞노적
뒤로걸었다 뒷노적
명예노적 헛노적 노적가래
범덕기 새끼쳤다
한가래 툭툭치니
이리도 천석이 쏟아지고
또한가래를 툭툭치니
저리도 천석이 쏟아지고
온몸을 툭툭치니
명각복각 쏟아진다

※ 1978. 6. 15. 장성훈(남·63세·농업)
김량장리 중앙구 133

모심기 노래

어여어여 어허어여라
드문드문 심어도
간고르게 심어라
[후렴] 어여어여 어허어여라
드문드문 심어도
삼배출짜리로 심어라

※ 1978. 5. 4. 소진욱(남·농업)
이동면 서리 불당골

모심기 노래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양석자리로 꼬자나 주게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간(間)만 고르게 꼬자나 주게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얼핏설핏 꼬자나 주게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황새축새 성큼실적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일락서산에 해너머 간다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질척벌척 꼬자나 주게

※ 1971. 5. 황영수(남·49세·농업)
기흥면 공세리 탑안

논매기 노래

오오응차
찍었네야 찍었네야
하나들이 떨지라도
〔후렴〕 오하응차 찍었네야
열스풀이 찍는듯이
울걱울걱 잘도맨다

※ 1976. 4. 20. 李元泰 외 6名(남·45~70세·농업)
모현면 왕산리 관청

논매기 노래

오하오하
애애리이 리리리아야
워드급차 적어내야
에헤에헤 들러라
에헤에헤 들러라
어하아아 들이 좋다

※ 1978. 4. 22. 두계울 성모식당 옆집노인

논매기 노래

둘레둘레 돌—레야
둘레둘레 돌—레야
오호둘레 돌—레야
오호둘레 돌—레야
논을매고 돌—레야
힘이들면 쉬어하고
물이넘쳐 돌—레야
목이타면 술을먹세
〔후렴〕 둘레둘레 돌—레야
 둘레둘레 돌—레야
 오호둘레 돌—레야
 오호둘레 돌—레야
술을먹고 하늘보고
빨리하세 빨리하세
논—매며 노래하세
서쪽으로 해가지네
오른손엔 호미잡고
둘레둘레 돌—레야
왼손으로 풀을 뽑세
오호둘레 돌—레야
둘레둘레 돌—레야
해가지면 그만하고
오호둘레 돌—레야
집에가서 편히쉬세
추우면은 옷을입고

26 [I] 노동요(勞動謠)

둘레둘레 돌—레야
더우면은 목욕하세
오호둘레 돌—레야

※ 1978. 4. 20. 이문복(여·53세·농업)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논매기 노래

오화눔차 찍어내어
여기저기 찍더라도
간은살만 고르게 찍어주소
오화눔차 찍어내어
여보세요 농부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여기저기 찍더라도
양석제로 찍어주소
오화눔차 찍어내어

※ 1979. 5. 3. 김종찬의 아버지(남·69세·농업)
내사면 정수리

논매기 노래

에헤야 호미차
에헤야 슬슬돌리세
에헤야 짝었네
에헤야 슬슬돌리세
에헤야 고렸네
에헤야 슬슬걸어가세
에헤야 어허
농부야 말들어보소
올해도 풍년이니
내년도 풍년이되게 해주시오서
하늘이 내려주신 의논인데
흉년이 무엇인가
농부의 피와땀이 허세로다
에헤야 고렸네
에헤야 고렸네

※ 1979. 4. 7. 김영백(남·52세·농업)
용인읍 호리 호동

논매기 노래

우—우—하—호호이
녕차 두르기좋아
에—에—헤 고렸네
오—하 두르기좋아

※ 1979. 4. 5. 유석희(남·50세·농업)
용인면 마평리 삼박곡

논매기 노래

어허하남차 찍었네야
여보게들 농부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후렴 1] 어허하남차 찍었네야
산동허리를 굽닐면서
대허리단차매 매교가세
이논뱀이가 스마지기에
반달만큼 남았구나
노세 젊어서노세
높고병들면 못노니라
대허리단차매 매어보세
어릴렷렷 상사디야
어릴렷렷 상사디야
상사로구나 상사로구나
임이그리워 상사로다
[후렴 2] 어릴렷렷 상사디야
상사소리를 영잘하면
막걸리동이가 공중에뿔구나
술이생기진 취하도록 생기구
임이생기면 이별없이살아보세

※ 1979. 4. 8. 김정순(남·75세·농업)
용인읍 남리 평옥부락

논매기 노래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한번 지여보세
[후렴] 에이여라 방아어오
앞주래는 논을사고
뒤주래는 밭을사고
풀이나 출녕수단이야
물이말라 건담이야
건담수답을 다더러놓고
오곡잡곡을 심을적에
엇던베를 던지더야
여주이천 잡태베요
아래역운 역노인베
운물앞에 썬달이요
운물뒤에 물정베
커덕풀을 쟁기찰요
혼자먹어 뒤지찰베
빙거지 상무쌀이요
여기저기 꼬자노니
풍년질세 도라왔네

※ 1979. 5. 13. 지영식(남·54세·농업)
이동면 천리 샘골

상사타작

에~ 얼렷렷 상사뛰야
[후렴] 에~ 얼렷렷 상사뛰야
에~ 얼렷렷 상사뛰야
한 마디를 도로 갖고
한 마디는 그냥 갖고
천하지대본은 농부로다
이 논배미다 벼를 심고
장잎이 훨훨 올라
어 얼렷렷 상사뛰야
올 농사 잘 지으면
부모님께 공양하고
어 얼렷렷 상사뛰야
여봐라 농부들 말들어라
동지선달 엄동설한
춘하추동이 다지나고
춘하춘봄이 되었구나
에~ 얼렷렷 상사뛰야
상살로구나 상살려나
누구를 그려서 상살려나
부모를 그려서 상사로구나

※ 1976. 김삼남(남·77세)
모현면 농원리

찍었네 타령

어하어흠차 찍었네야
 [후렴] 어하어흠차 찍었네야
 얼싸좋다 잘도하니
 어하어흠차 찍었네야
 노세노세 젊어서노자
 늙고소병들면 못노나니
 젊어서청춘에 먹고놀고
 거들거리고 놀아를보세
 어하어흠차 찍었네야
 하람청산 만화방창
 떼는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을가세
 죽장마해 단포자루
 천리강산을 들어를가니
 폭포수도 좋거니와
 여산경치가 여기구나
 잘도하네 잘도하네
 찍었네소리를 잘도하네
 찍었네소리를 참잘하면
 밤이생겨도 세그릇이고
 술이생겨도 세사발이고
 어하어흠차 찍었네야
 움머쇠야 움머쇠야
 아랫움머쇠야 움머쇠야
 장찬발에 움머쇠야

사례 차고 움머쇠야
 아랫머리는 움머쇠야
 오조를갈고 움머쇠야
 웃머리는 움머쇠야
 청자조십어 움머쇠야
 새야새야 앉지말아
 커다란치녀 몸다는구나
 새야새야 앉지말아
 커다란치녀 울고앉았네
 우워 ~ 내혀

※ 1976. 조찬수(남·62세·농업)
 모현면 일산리

찍었네 타령

에 ~ 여러분들이여, ~일시협력하여
 논매기노래 한마디 불러봅시다
 에 ~ 워흠차 찍었네
 [후렴] 에 ~ 워흠차 찍었네
 찍었네하는 여러농부님들
 일치단결 협력하여
 논매기에 열중합시다
 일치단결 협력한후
 진달같은 논매미가
 반달같이만 남았구나

※ 1976. 박재근(남·53세)
 모현면 배산리 진해촌

찍었네 타령

에~어~ 위음차 찍었네야
[후렴] 에~어~ 위음차 찍었네야
여포슈농부네 이내말들세
에~어~ 이었네야
우리의청춘이 오늘인데
내일백발을 피할쏜가
백발을줄을 알았으면
뉘라서 일을할까?
하늘높이 오는백발
천하장수라도 못막노니
노세노지 젊어서노자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오늘해도 다갔는데
골골촌촌에 연기로구나
이내집에선 연기가없구나

※ 1976. 김삼남(남·77세)
모현면 능원리

애벌매기

위화—위— 힐래래호야
위화—위— 힐래래호야
예해고련에 위화두리기조와
한번즈면 양석이요
두번즈면 삼백출이라네

※ 1976. 6. 금인영(남·농업)
용인읍 교림리 임원부락

논애벌매기 노래

여보시오 농군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천하지대본야는
농사밖에 더있는가
올해도풍년 내년에도풍년
세세년년 풍년들어
국태민안 이뤄보세
[후렴] 우헤이어—어기영차 찍었네 아하—

※ 1978. 4. 22. 이재천(남·63·농업)
포곡면 신원 2리

김매기 노래

김매러가세 김매러가세
우장을 허리에 두르고
김매러가세
이논배미 얼른매고
저논배미로 건너가세
새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네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얼얼떨떨 상사뒤야

※ 1979. 2. 17. 고병주(남·50세·농업)
용인읍 호 2 리 365

김매기 노래

우장을 허리에 두루고
김매러가세
이논배미 얼른매고
저논배미 건너가자
이논배미 다되었으니
장구배미 넘어가서
얼얼떨 상사뒤야
얼씨구 좋다
얼얼떨 상사뒤야

※ 1979. 2. 15. 권영철(남·43세·농업)
포곡면 삼계리 도사

김매기 노래

오리어금차 뛰금매라
〔후렴〕 오리어금차 뛰금매라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청춘 오늘백발
그아니도 가련하냐
장래에 일등미색을
꼭다고 자랑마라
서산에 지는해와
동녘에 쫓는달은
그누구가 막을손가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맹안중 정부자두
도덕이 과천하여
만고후을 일렸건만
한번아차 죽어지면
영웅영천 그만일세
만고절색 영웅들도
한번죽으니 허사로다
하물며 초로같은 우리인생
말은하여 무엇하리

※ 1979. 6. 고계순(남·58세·농업)
용인읍 호리 365

꿀 노래

형신고생 고얀근
 지진경부 부를적에는
 영감소식 묻지를말고
 지계등발만 지고가자
 여보시오 석손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인간고려 태평하구나
 여보시오 석손님네
 인간가슴 청풍하고
 부모건강 채였으니
 체주분만 하리로다
 번들이 어떻더냐
 어이구지구 하는말이
 청산도 꽃이피어도
 백설백발 노인들아
 이내한마음 뜻을박아 듣지하리로다.
 어이구지구 우리부모
 불쌍하기가 짝이없네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내몸이 어찌되어
 이런고생 하리로다.
 얼씨구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임자없이 지낸정이
 임과꿈과 매인가슴이
 속터지는구나,

내가슴 썩어드는
정과같이 매였으니
인물과 인플하리르다.
어머님 아버지님,
얼씨구 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1976. 황재하(남·53세)
모현면 매산리 중천



2. 여요(女謠)

물레 노래

오용오용 물레야
금자량에 팔이야
옥자량의 팔이야
돈두돈두 구찬다
출로출로 내림방아
선반에소리 전나네
산으로 올르든
방아는 신진방아
집으로 내려든
방아는 디딜방아
디디아소 디디아소
에헤루 디디아소
곰보곰보 때곰보
아가리 딱딱 벌러라
오조밥에 열무김치 들어간다
떨꺼덩 쿵덕쿵 찢는방아
담넘어 짓는개야
인양당 호랑이나 물러가라
울안에 우는닭
살갑산 살팽이 물러가라
떨꺼덩 쿵덕쿵 찢는방아
이방아 다꿏고
이젠가서 님품에드나

※ 1979. 4. 3. 최중예 (여·67세)

용인읍 김량장리 동구

물레 노래

목화를 입히에 물어
 팔구월에 면화파니
 사오개월 재배하여
 목화따서 질쌘하세
 활을메서 면화틀어
 고추를 만들어서
 물레질을 하여보세
 우영우영 우이영
 굵은대는 잡아뽑고
 가는실을 뽑아보세
 한팔두팔 짜아내서
 수천팔을 뽑아내어
 질쌘을 치려놀때
 앞다리는 높여놓고
 뒷다리는 낮혀놓고
 잉아대는 삼형제고
 한필두필 짜아내는
 부인들의 힘으로세
 주야를 불구하고
 물레돌려 실을뽑는
 부녀의 힘으로서
 의복을 갖춰왔네
 우영우영 물레질은
 부녀의 힘이다.

※ 1979. 4. 3. 전만길(남·63세·농업)
 모현면 매산리 진해촌

물레 노래

위영위영 위영미영 잣는물레
한꾸리 두꾸리 잣는물레
어사잡고 물러가자

※ 1978. 5. 4. 소진옥(남·농업)
이동면 서리 불당골

물레 노래

우영우영 잔는물레야
한꼬친날 내려볼까
두꼬친날 내려볼까
세꼬치나 내려볼까
어디서 병이났다
개모리에서 병이났다
남산봉원에 남도령님
남산봉원에 이도령님은
인마대만 길러내고
참깨죽을 드리리카
들깨죽을 드리리카
동난간에다가 베틀을놓고
올라갈적에 짚가닥짚가닥
내려갈적에 짚가닥짚가닥

배틀다리는 뱃인데
 배짜는발은 돌이로다
 인아대는 삼형제요
 눌립대는 독신이라
 응애응애 우지마라
 아가아가 우지마라
 재미가 절르나서 잘도판다
 오늘은 일꾼자가흠
 내일은 몇자나짜나

※ 1979. 4. 홍성우(남·51세·농업)
 이동면 덕성리 50

물레 타령

물레야 돌아라
 가락야 돌아라
 영감 잡놈은
 장타령 가고요
 시어머니 잡년은
 곳집에 가고요
 시누이 첩년은
 잔치집 가고요
 물레야 돌아라
 가락야 돌아라

※ 1979. 2. 15. 강신길(여·57세·농업)
 이동면 천리 노루실

물레 노래

물레야 돌아라
물레야 돌아라
가락아 돌아라
물레의 가락은
쌀쌀이 도는데
영감의 잡늬은
장타령 가고
시어머니는
곳구경 가고
시누의 첩년은
잔치집 가고
물레야 가락아
쌀쌀이 돌아라
시어머니 오시면
물레질 적게했다고
구박받는다

※ 1978. 5. 2. 재용모(여·55세·농업)
이동면 천리 584

베틀 노래

위엿 위엿 위엿
목화송이 피어서
꼬치를 만들어서
실을 만들어서
베틀에다 달아놓고
명이나 짜보세
에헤야 베틀가나 불러보세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십만 지노라
낮에 짜는건 일공단이요
밤에 짜는건 월공단이라
일공단 월공단 짜은비단
어느냥군 입을손가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십만 지노라

※ 1979. 6. 이재천(남·63세·농업)
포곡면 신원 2리

베틀 노래

오늘날도 하심심하기에
벼틀이나 놓아나볼까
[후렴] 에헤야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일광단 월광단 다짜가지고
어느덧 뒤를 거두어보나
은아자꾸가 꺾무너졌으니
건너갈길이 막연하구나

※ 1978. 5. 2. 재용(재·여·55세·농업)
이동면 천리 584

벼 틀 가

오늘날도 하심심하니
벼틀이나 놓아볼까
사랑노래 벼틀에
베짜는 아가씨는
수심만 끼노라
눌림때는 외덕신
잉아때는 삼형제
짚각짚각 짚가닥
낮에 짜는것은 일광단요
밤에 짜는것은 월광단요
일광단 월광단 끈게다듬어
어느님을 모셔올까
들창밖에 날리는 비는
가신님에 눈물이야
오동동주야 달이동동 밝은데
님에동동 생 각

46 □ 노동요 (勞動謠)

살이동등 나노라
오동등 오동등
술타령이 오동동야

※ 1979. 4. 3. 최종예 (여 · 67세)
용인읍 김량장리 동구

비 짜는 노래

하늘에는 벼들을 놓고
구름에는 잉아달고
잘각잘각 짜노라니
씨앗죽은 통보왔네
아이고고년 잘죽었네
버선한결래 해줄렀더니

※ 1978. 10. 29. 강옥수 (여 · 44세 · 농업)
용인읍 운학리 장재미

비 틀 가

오늘날도 하심심하니
베틀어나 놓아볼까
[후렴] 에헤여 에헤여 에헤요
에야루난다 디여라

해송새월 미려라
일광단 월광단 다짜놓고
어느향년에 시집을가나
노랑수태가리 들래상투
언제나길러서 낭군을살나

※ 1979. 5. 18. 김병성(남·48세·농업)
포곡면 전대리 311



방아타령

덜커덩 쿵더쿵 짙는방아
저녁새벽 새별은 떠올라오고
잠동허리를 굽일어서
무릎아래로 힘을줘서
덜커덩 쿵더쿵 짙는방아
얼른짙고 임보러가세
얼씨구나 좋을씨구

※ 1979. 2. 12. 이남윤(남·76세·농업)
용인읍 김량장리 남구

방아타령

높은산에 눈날리듯
얕은산에 재날리듯
옥수장마 비퍼붓듯
개천바닥 물에쏟을
한손두손 찌어내니
백호같은 흰쌀이라

※ 1979. 2. 13. 홍성우(남·52세·농업)
이동면 덕성리

방아타령

예해이 예해어라 방아오
[후렴] 예해이 예해어라 방아오
 예해이 예해어라 방아오
이방아가 누방아냐
강태공에 조작방아
광주분원에 당싸기방아
여주이천에 자채방아

※ 1979. 5. 13. 배진근(남·68세·농업)
 남사면 완장리 매농동

방아타령

털거덩 궁타리 쿵짚는다
언제나 쫓고서 잡을자나
굴래굴래 자자짚는굴래
고르게는 내고르게
슬금슬쩍 실어나게
삼동허리를 끼고
무릎위에 힘을주어
굴래굴래 자자짚는굴래
쌀개에서는 불이나고
자개에서는 우기나네

※ 1979 . 4. 9. 박상운(여·74세·농업)
 포곡면 둔전리

방아타령

쿵덕쿵 찰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님만나러 가나
쿵덕쿵 쿵덕쿵
이쌀 다짚고
떡 만들어
우리님과 같이먹세
쿵덕쿵 쿵덕쿵
손이 다달토록
찢어나 보세
덜커덩 쿵덕쿵 쿵덕쿵

※ 1979. 2. 17. 홍언년(여·71세)
포곡면 마성리 삼전 28

방아타령

방아방아 물방아
쿵쿵찰는 물방아야
너의힘이 장하구나
폭포같이 쫓는물에
떨어지는 공이소리
쉴새없이 울리면서

한섬두섬 찌어내니
백옥같은 흰쌀일세

※ 1979. 2. 15. 양을순(여·72세)
이동면 천리 584

방아타령

덜커덩 쿵덕쿵 찼는방아
언제나 다짚고 잠을자나
이렇게 찼어도
밤중전에는 다짚네
재주재주 밟아주게
방아실개는 불이나고
방아화개는 재가되네
저기저 모닥불은
내속타듯 잘도탄다
저마당가생이 쇠두넘은
내속씩듯 잘도씩는다
실금실적 팻밥쌀로 찌어주소

※ 1979. 2. 15. 양을순(여·72세)
이동면 천리 584

빨래 노래

울도담도없는 시집살이 삼년하고보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제야제야 며늘아가
 너에낭군 보려거든
 진주낭간에 빨래를가라
 하늘같은 말을타고
 구름같은 갓을쓰고
 본체얹고 지나간다
 흰빨래는 희게빨고
 검은빨래는 검게빨고
 오동둥이에 대자이고
 집이라고 들어오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제야제야 며늘아가
 너의낭군 보려거든
 건너방을 들어가서
 오색가지 수를놓고
 기생침을 옆에끼고
 본체얹고 술만먹더라
 이몸이 살아서 무엇하랴
 명기석자 목에다걸고
 차는듯이 죽었구나
 너죽은줄은 나몰라라
 너죽은줄은 나몰라라
 조강지친 백년이요

두체첩은 석달이다
이왕죽은 사람은 죽었거니와
너와나는 변치나말자

※ 1979. 4. 29. 임옥순(여·45세·농업)
내사면 정수리



목화따기 노래

목화를따세 목화를따세
백설같은 목화를따서
우리낭군 헛솥바지저고리
내손으로 지어드리자

※ 1978. 4. 22. 양재옥(남·50세·농업)
포곡면 영문리

대추따기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
애들아 애들아 주서라
어른아 어른아 잡서라
소야 소야 울어라
음—대 음—대

※ 1979. 2. 13. 김순철(여·85세)
용인면 마평리 삼락곡

나물 캐는 노래

속속뿔어 나생이
잡아뜯어 꽃달이
이개저개 지친개
오용도용 말맹이
오른도픈 돛나물

※ 1979. 5. 18. 정덕순(여·74세)
내사면 제일리

나물캐러 갈때 노래

가을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풀랐는데
뒷등산에 행아추절이
날 가르쳐주네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다

※ 1978. 4. 양재옥(남·50세·농업)
포곡면 영문리

뽕 타 령

뽕따러가세 뽕따러가세
이—뽕따고 저뽕따고
뽕따러가세
우리님 오실날
얼마남지 않았네
어서어서 뽕따러—가세
이바구니 가득
저바구니 가득
뽕따러가세

※1979. 2. 7. 이십중(여·79세)
용인읍 김량장리 서구 90번지

부엌 노래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양어머니 불쌍하다
목을꺼서 옆에끼고
복문으로 들어가면
몹시열한 춘향이야
허락한마디 하련마야
옥중에서 죽을지언정
허락한말은 못하겠소
잘났어도 내남군
못났어도 나의남군
청실홍실로 인연을 맨질
부모님이 정한요절
허락한마디 못하겠소

※ 1976. 4. 모현면 왕산리 관청마을에서

여 백

② 내방요(內房謠)

〈내방요〉는 부녀자들이 내방에서 부르는 노래의 총칭으로, 여성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는 탄식요(歎息謠), 이별요(離別謠) 및 시집살이의 고통을 노래한 〈시집살이 노래〉 〈팔자타령〉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 백

시집살이 노래

못살겠네 못살겠네
나는나는 못살겠네
술담배는 끊고서는 살아도
시집살이는 못살겠네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집살이 못살겠네

시어머니 없으면은 좋다더니
보리밭아 물보놓고
시어머니 생각나네
시아버지 없으면은 좋다더니
왕골자리 떨어지고
시아버지 생각나네

※ 1978. 4. 20. 이문복(여·53세·농업)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시집살이 노래

못살겠네 못살겠네
나는나는 못살겠네

한살먹어 어머니 잃고
두살먹어 아버지 잃고
삼삼은구 아홉살에는
부모동기 이별하고
삼오십오 열다섯살엔
시집이라 왔더니만
낮에는 김매래고
밤에는 방아찌래고

못살겠네 못살겠네
나는나는 못살겠네
수탉같은 시아버지
암탉같은 시어머니
여우같은 시누이때문에
못살겠네 못살겠네
나는나는 못살겠네

※ 1978. 4. 20. 이문복(여·53세·농업)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시집살이 노래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뭇더까
거쳐 단쳐 맵다하니
시집살이보다 더매우랴
시집살이 할적에

귀먹어삼년 눈떨어삼년 병어리삼년
석삼년 구년을 살고보니
꽃같은 이네딸이
이야리꽃 다뺏구나

※ 1979. 2. 13. 김순철(여·85세)
용인읍 마평리 삼박곡

시집살이 노래

암탉같은 시어머니
장탉같은 시아버지
개대가리같은 시아제에
메초리같은 시누년매
초추단초 맵다하리
시집보다 더매우리
아이고대고 못살겠네
시집살이 못하겠네
에헤야 데헤야 상사리아

※ 1979. 4. 3. 이재분의母(여·42세·농업)
용인읍 김량장리 서구 오류동 85

시집살이 노래

시어머니 죽었다고 춤추더니
보리방아 물보놓고 절로생각나네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시아버지 죽었다고 좋아하더니
왕골자리 떨어지니
시아버지 생각나네
시동생 죽었다고 좋다고하더니
멜나무 떨어지니
시동생생각 절로나네
시누이 죽었다고 좋다고하더니
산나물 나더니
시누이생각 절로나네

※ 1979. 4. 8. 박상준(남·45세·농업)
용인읍 김량장리 서구

시집살이 노래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뭇디까
작은고추 뺏다한들
시집보다 더매우랴
귀먹어서 삼년
눈물아 삼년
병어리 삼년
석삼년을 살고나서
뿔동산 진달래나무
기둥감이 다되고

앞넷가에 개나리꽃은
중방같이 다되었네
창칼같이 곧던허리
질막가지가 웬말이나
배꽃같이 곱던얼굴
노랑꽃이 다되었구나
삼단같이 좋던머리
비수리침이 다되었네

※ 1979. 5. 13. 김정순(여·50세·농업)
남사면 창리 화곡동 43

시집살이 노래

누님 누님
곶게자란 우리누님
시집살이 어뭇떠까
꼬추보다 더매운
시집살이 어뭇디까
곶게곶게자란 우리누나
열두살에 시집가서
시어머니 성화란
바늘방석 앉는것과 다름없이
조석으로 들볶든 일이야
여자로서 못살겠다 할지라도
열두살먹은 남편
친부모님 훈계로서

죽어도 살어도
시집울타리 밑에서
죽어라는 말씀에
일편단심 열녀효부 되기로써
육십평생 살아왔네

※ 1979. 4. 8. 이병직(남·65세·농업)
구성면 중리 260

시집살이 노래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떠리까
꼬추단추 맵다더니
시집처럼 더매울까
시집삼년 살고나니
열이꼬치 다피었네
덩기덩기 덩사나
날아가는 확산나
구름속에 신선하
어그매저그매 팽괘조
우리삼지 녀졌꿈
노두감투 설졌꿈

※ 1979. 4. 9. 박상운(여·71세)
포곡면 문전리

사향가(思鄉歌)

동으로가도 내고향
서으로가도 내고향
동서사방 어대든지
이몸가는 곳마다
모두가 내고향
이세상 어대던지
사람사는 곳마다
이몸이 가서
사는 곳마다
모두가 내고향이로다

※ 1979. 2. 17. 김찬기(남·75세·농업)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새래)

사친가(思親歌)

부모같이 중한님은
세상천지 없건마는
임을그려 소려말고
삼하진정 못잊겠네
꿈을꾸더야 날을세나
(꿈을꿔도 날이새도)
부모생각이 간절하다

※ 1979. 6. 모현면 왕산리 관청마을에서

사친가(思親歌)

노공방초 승하시에
해는어이 수위가나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사리
이만하면 넉넉하지
일촌간장 맺을전을
부모님생각 뿐이노라

※ 1979. 2. 17. 김복영(남·50세·농업)
내사면 양지리

사친가(思親歌)

앞발에 이수갈어
이수물들여 노랑저고리
뒷발에 족을십어
다옹뎡기 하여입고
어머님집에 갈래떠니
어머님돌아가신 소식왔네
짚싯벼어 옆에끼고
뎡기풀어 나무에걸고
비나는 빼어 땅에묻고
고개고개 넘고넘어
마지막고개 넘어가니
우리어머님 은장치는 소리나네
아고지고 부모공 언제잘을까
쇠를빼서 신발창을 받아도
부모공 못다갈네

※ 1979. 5. 13. 김정순(여·50세·농업)
남사면 창리

사친가(思親歌)

정월이라 십오일에
완월하는 소년들은
홍풍도 보려니와

부모님 봉양을 생각더라
 신체 발부의 사대걸을
 부모님께 받았으니
 태산같이 높은덕과
 하해같이 깊은정을
 어찌하여 잊으리오
 천세만세 믿었더니
 봉배방장 영주산에
 불노초와 불사약을
 인력으로서는 못얻겠소
 슬프도다
 수역정이 풍부지하고
 자용양이 천부제라
 공상작목 일부터에
 용열절찬이 왜일이요
 슬프도다 우리부모
 상원인지를 모르시는
 그날그픔을 허성하니
 봄이들어 불탄종이 빛나고
 후인들이 슬어하여
 항직이라고
 직당위 삼대성제
 승매벽을 하시더라
 여산성벽과 무릉춘춘은
 이응백의 다정이요
 만택행지 꿈은하니
 저계절에 생각이요
 슬프도다 우리부모

청룡인지를 모르시다
그달그믐을 허성하니
삼월이어 삼길날에
연자가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호적은 분분하여
구색을 자랑하네
계수에 목욕하고
모은에 바람수에
동동거이 소서하고
임천여이 부수로다
촌가의 농부들은
신춘을 만난다고
농구를 들레메고
처처에 왕래하니
백마굽을탄 소년들은
쌍을지어 노닐적에
산화작작 낭만계라
(이하 중단됨)

※ 1979. 4. 5. 윤병찬(남·65세·농업)
모현면 왕산리 독산부락

신세타령

이몸이 출생후에
나할일 다못하고
이몸이 늙게되니
신세한탄 하여보세
전생에 무슨죄로
남다 호의호식 하건만은
이몸은 어찌하여
농촌에 파묻혀서
지게목발 덜매고서
밤이되나 낮이되나
산야섬중 깊은곳에
주야를 헤매는고

부모슬하 태어날때
어떤부모 아니훈계 하였는고
나잘못해 심상군곡 하는것이
자연히 잘못을 깨닫노라
슬프다 세월이야
어느듯 열유한
세월은 흘러가고
나의 육십평생 당했으니
불실한 수족이 불구하여
지척을 헤매노라

※ 1979. 4. 3. 전만길(남·63세·농업)
모현면 매산리 진해촌

신세타령

쓸쓸한 강변에
떠도는 내신세
누구를 바라고
나여기 왔는가
돈도 명예도
행복도 다 싫다
쓸쓸한 강산에
고생을 면하고
유우엔 저나라
이몸은 갑니다
불쌍한 두남매
어페로 갈까요
어머님 가신곳
알려나 주셔요

※ 1979. 4. 3. 송재은(여·42세·농업)
포곡면 유운 1리 소운부락

신세타령

아이고아이고 내신세여
남날때 나도났고
나날때 남도났건만
무슨복을 못타고나서

74 ㉔ 내방요(內房謠)

남살때 나는똥사나
아이고아이고 내신세여
이내팔자 기막하여
요모양요꼴로 사나

※ 1979. 5. 13. 권학일(여·56세·농업)
이동면 천리 샘플



③ 연정요(戀情謠)

〈연정요〉는 사랑노래 · 정애요(情愛謠) · 정요(情謠) 등으로 불리우는 노래로서, 사랑과 연정을 노래한 〈목화 따는 처녀〉, 〈뽕 따는 처녀〉 등과 남녀간의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한 상사요(相思謠), 치정요(痴情謠) 등이 있다.

여 백

연 정 가

아들네기 걸다리 씨러진 골목
자동차 기차는 바람에 가고
너하고 나하고 정들어 살자
애기전달 들어간다 문열어 나라
참외골 굴안에 기동차소리
양지장말 주장의말 응덩춤 춘다

※ 1979. 2. 15. 김성기 (여 · 56세 · 농업)
모현면 일산리

연 정 가

뒷동산에 싸릿가지는
꽃감꽃이로 다나가고
문경새재 개박달나무는
홍두깨나무로 다나가고
홍두깨는 팔짜가좋아서
큰아가씨 손목으로만 뱅뱅돈다

※ 1979. 4. 8. 이동례 (여 · 57세)
이동면 묵리 한덕

연 정 가

너하고 나하고 정들제
 육칠월 수수밭 그늘에서 정을연지
 수수밭 도지는 내물어 줄께
 구시월까지는 참아주오

※ 1979. 4. 3. 장의환(남·64세·농업)
 용인읍 삼가리 조현

연 정 가

얼렁덜렁 회갑사맹기
 길방도련님 노리개라
 여보여보 김도령님
 손목 놓겠나
 오이샤 조고리
 동떨어지면 내가해줍세
 리리리 띠리
 황천봉천에 큰큰아기는
 봉천을받고 죽었다네
 봉천을받아서 염습하고
 함은받아서 널을짜고
 흥대칠성으로 요를삼고
 폐당으로 이불삼고

깊은산중 홀로누웠으니
어느누가 나를찾아오나
두견새 우는소리로 벗을삼네

※ 1978. 4. 20. 이문복(여·53세·농업)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연 정 가

나이 열다섯세에 청실홍실 늘어놓고
하루저녁 요인하고
아침일어나 다홍치마
거듬거듬 거터않고
부엌에 들어가니
각시들만 소복소복 쌓여있네.
할일없이 이부두막을 흘려보니
소도방에 먼지만
자옥자옥 끼었구나
할일없이 마루에
서슴 올라서니
뒤지문 벌떡 떨어지더니
할일없이 광안에 들어가니
거미줄만 자옥자옥 늘어있네
쫓바구니 집어들고
두메 산골 보리밭을 찾아가니
익은보리 젖어담고

푸른보리 젖어놓고
집에 돌아오니
방아학에 쿵덕쿵덕짚어
보리를 짚어놓고
사랑문을 열어놓고
숫타같은 시아버지
보리진지 지었으니 잡수세요
안탕문을 열어보니
암탉같은 시어머니
보리진지 잡수세요
옷방문을 열어보니
오롱조롱 시누시동생에
보리진지 잡수세요
나는잡니다 나는잡니다.
여보시오 손님베야
입자없는 건너방문을열고
청안씨같은 새서방님
보리진지 지었으니 잡수세요
요시상을 누구를믿고
요시상을 살아가오
두말달고 어서두러오오
다사담속 끼어넣고
얼싸둥둥 내사랑아

※ 1979. 2. 12. 조영래 (여·63세)
용인읍 역북리 중간동

첩요(妾謠)

해는지고 저문날에
옥가실하고 어디가오
첩에집에 가실려면
나죽는꼴을 보고가소
첩에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한철이래도
연못의금붕어는 사철이라

※ 1979. 2. 12. 이원태(남·51세·농업)
모현면 왕산리 관청

여출(女出)

울타리 꺾으면 나온다더니
행랑채 부셔도 안나오네
돌풀매 던지면 나온다더니
연자매 굴려도 안나오네
을그죽죽 불그죽죽 반분홍치마
널판을 굴리면 나온다더니
널판을 굴려도 안나오네

※ 1977. 10. 24. 원삼면 맹리 안골에서

노총각 노래

봄이왔네 봄이와
꽃바구니 옆에끼고
아장아장 걸어간다
산들산들 부는바람
피리소리 구성지다
늙은총각 기가탁허
호미자루 내던지고
신세한탄 노래하네

※ 1978.6. 이문복(여·53세·농업)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흙아버지 소리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만족하지
새벽서리 찬바람에
그발몰을 던진듯이
무엇을믿고 잠이오나
받겨줄이 하나없고
신부생각에 잠못이뤄

새벽서리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럭아
너도나와 짝을잃어
울고가는 게로구나

※ 1976. 7. 김삼남(남·77세)
모현면 능원리



여 백

4 자장가 및 희아요(戲兒謠)

.....
〈자장가〉는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로 ‘잘도 잔다 노래’, ‘은자둥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희아요〉는 아이를 귀여워 하면서 얼르며 부르는 노래로서 ‘동계동계’, ‘불아불아’ 노래 등으로 일컫고 있다.

여 백

자 장 가

아가아가 우지마라
어머니는 장에가서
떡받아다 주마더라
아버지는 장에가서
신사다가 주마더라
오이한쌍 열리어서
바지랑배로 따게되면
오마더라 오마더라
떡도싫고 신도싫고
울어머니 젓만주소

※ 1976. 7. 원삼면 죽능리에서(여·농업)

자 장 가

자장가 두리둥실 내자식
어서어서 잠에들결랑 왕이되어
네어미 보살피고
잠이깨어 자라결랑 효자되어
훌륭한 사람되길 비나이다
자장자장 내아들
잘도잔다 내아들

자장자장 내아들
잘도잔다 내아들

※ 1979. 4. 3. 김석봉(여·52세·농업)
용인읍 해곡리

자 장 가

아가아가 잘자거라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꿈을 꾸느냐
효자똥이 되려느냐
열녀똥이 되려느냐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꿈을 꾸고있나
아가우리아가 잘자거라
검둥개도 잘도자고
노랑개도 잘도잔다
하얀개도 잘도자고
우리애기 잘도잔다
세상살이 만물중에
 으뜸이란 우리인생
 초로같은 우리인생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꿈을 꾸고있나
 우리아가 잘자거라

엄마아빠 배고파도
너희들을 생각하고
부모라는 책임완수
다하여서 양육하여
충성을 바라노라

※ 1979. 4. 3. 전만길(남·63세)
포곡면 배산리 진해촌

자 장 가

두리둥실 내자식
어서어서 잠에들결랑
어서커서 이엄마보살피고
잠에깨어 자라결랑 효자되어
큰사람되길 비나이다
자장자장 내아들
잘도잔다 내아들
자장자장 내아들
잘도잔다 내아들

※ 1979. 4. 1. 김정수(여·52세·농업)
남사면 창리

자 장 가

자—장 자—장

[후렴] 우리야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금자동 은자동아

[후렴] 자장자장 잘도잔다

금을준들 너를사며

우을준들 너를사랴

효자동아 충신동아

※ 1979. 4. 8. 김진순(여·49세·농업)
용인읍 호2리 365

자 장 가

[후렴]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눈알이켜서 잃어버린 것도 잘찾겠다

코가켜서 냄새도 잘맡겠다

입이켜서 삼투쌈도 잘먹겠다

※ 1978. 6. 홍성우(남·51세·농업)
이동면 덕성리

자 장 가

우리아가 잘도잔다
우리애기 잘도잔다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등기등기 우리아기
금을주면 너를사랴
은을주면 너를사랴

※ 1978. 5. 2. 신언예(여·74세)
용인읍 김량장리 서구 85

자 장 가

자장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효자동이 되려느냐
학자동이 되려느냐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꿈을 꾸고있나
부자될꿈 꾸고있나
공부할꿈 꾸고있나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 1978. 4. 22. 이재천(남·63세·농업)
포곡면 신원 1리

자 장 가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금을준들 너를사나
은을준들 너를사나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꿈을 꾸고있나
나라에는 충신되고
부모한테 효자되니
등지간에 우애되니
일가간에 화목된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 1979. 2. 14. 김영길(남·58세·농업)
모현면 일산리 월촌

자 장 가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은을주면 너를사며
금을주면 너를사랴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두잔다
나라에는 충신등하
부모에는 효자등하

등하등하 월등등하
 동기간에 우에 등하
 등학등하 월등등하
 일가간에 화복등하
 등하등하 월등등하
 자장자장 우리애기두 잘두자구
 뉘싸리밑에 바둑이두 잘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자장가를 불러줄까
 자장, 자장, 자장……

※ 1979. 2. 11. 이홍순(여·65세·농업)
 용인읍 삼가리

자 장 가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리애기는 꽃밭에 재우고
 남의집 애기는 개똥밭에 재워지고
 우리애기 착한애기 잘자라서
 나라에는 충성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남에게는 화복동이
 우리애기 잘도잔다

※ 1979. 2. 16. 김복수(여·54세)
 기흥면 하갈리

자 장 가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청산 보배동아
은을주면 너를사리
금을주면 너를사리
웃그름에 옥동자
웃팔련에 민동자
오금산장 내아들아
둥기둥기 둥천하
날아가는 학선이
어머님께 효자동이
할머님께 귀염동이
둥기간에 위애동이
일가간에 화복동이
남의눈에 화초동이
산소앞에 일산동이
나라님께 충성동이
둥기둥기 둥천이
날아가는 학선이
청산보원 대추씨

※ 1979. 2. 17. 임결순(여·77세)
포곡면 전매리

세상달공

달공달공 세상달공
우리애기 잘도잔다
할아버지가 마당을쓸다
귀떨어진 돈하나를 좇어서는
밤한말을 사다가
살강밀에 묻었더니
쥐새끼가 들락날락
단한개만 남은것은
가마솥에 삶아다가
점떼기는 내가먹고
알맹이는 네가먹고
달공달공 세상달공
우리애기 잘도잔다

※ 1979. 4. I. 양승선(여·56세 농업)
용인읍 역북리

세상달공

세상달공 할아버지가
뒷간마당을 쓸으시다가
깃떨어진 돈한푼을
좇어가지고 서울을가서서

밤한말을 사가지고
오시다가 강물에 빠져서
조래미로 건져도 안건져지고
삼태기로 건져도 안건져지고
바가지로 건져도 안건져지고
어떻게해서 한톨을 건져서 삶아가지고
할머니는 집신쪽에 코풀어 들이고
할버지는 속접대 드리고
알맹이는 너하구 나하구
달공달공 먹자

※ 1979. 2. 13. 신동화(여·57세·농업)
용인읍 호리 예적

세상달공

시상달공 할아버지
뒷간마당 썰으시다
돈한푼을 주어서
서울시골 다니다가
밤한말을 사가지고
외나무다리 건너다가
깊은강물에 빠져서
밀빠진 조래미로
건져도 안건져지고
지나가는 행인의

담배대를 빌어서
하나둘씩 전져다가
찬장밑에 두었더니
들랑달랑 새앙쥐가
하나둘씩 다까먹고
밤한톨이 남아서
가마솥에 삶을까
옹솥에다 삶을까
가마솥에 삶아서
함박으로 건질까
조래미로 건질까
조래미로 전져서
겉껍테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고
속껍테기는 엄마
아빠 드리고
알맹이는 너하고
나하고 단들이
달콩달콩 다먹자

※ 1978. 5. 2. 박종은(남·43세·농업)
용인읍 유방리 무수막 347

세상달콩

둥테둥테야 우리야기 잘도논다

세상달공 세상달공
너희 할아버지 마당쓸다
일전한푼 얻어서 밤한말사씨
실강밑에 묻었더니
생쥐가 들랑날랑 다먹고
밤한톨 남았구나
남은한톨 너랑나랑 같이먹자
세상달공 세상달공
우리아기 잘도는다

※ 1979. 2. 12. 김문영(여·85세)
모현권 초부리 하초하

세상달공

불아불아 불아불불
할아버지가 뒷간질을 쓸다가
돈한푼을 얻어서
장터에나가 밤한달을 사가지고
도랑을 경충뛰어건너다 덤병빠져서
담배꼬같이르 건지다 못건져
조리로 밤한톨을 건져서
가마솥에 북북끓여서
겉겉대기는 까서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고
속겉대기는 까서
아버지 어머니 드리고

속알맹이는 씨공달공
내가 먹었지

※ 1978. 2. 18. 공석창(여·69세·농업)
모현면 매산 1리 중촌

세상달공

부라 부라 부라야
서울 길을 가다가
밤 한말을 좇어서
살강 밑에 묻었더니
머리짚은 새앙쥐가
들낙 날낙 다까먹고
벌레팅이만 남았네
가마솥에 삶을까
옹솥에다 삶을까
삼태기로 건질까
조래미로 건질까
우리식구 모여서
찜뽕기는 할머니
속뽕기는 어머니
알맹이는 업뽕이
달공달공 부라야

※ 1974. 6. 이근영(남·45)
이동면 천리

희아요(戲兒謠)

울애기 배는 똥배
엄마손은 약손
떡구싶어 먹었으니
쭉쭉 내려가라

※ 1979. 2. 15. 박종은(남·44세·농업)
용인읍 유방리 무수막 479-9

희 아 요

불아불아불아 불불불아
금명을 불어라
불불 불어라
때때천사도 불어라
불불 불어라
내의장옷도 불어라
불불 불어라
풀의새강 어디느냐
청산도 재녕생새이
불불 불어라
불이 곱명도불어라
풀먹감손 얼만가
닭한마리 술한동이

불불 불어라.

※ 1979. 4. 8. 박상운(여·74세)
포곡면 둔전리

희 아 요

부라부라 부라뚝뚝
이쇠가 어디천가
해동으로 조선국
명산대천에 불어난 천대
인지가 풀무가되고
효자충신이 마치가되어
천하만국에 큰그릇됐다

※ 1979. 2. 22. 김지환(남·56세·농업)
용인읍 삼가리

희 아 요

불아불아 딱딱 불어라
왕겨 한가마를 팔아서
하루 아침에 다불었구나
불아불아 딱딱 불어라
잘도분다
둥게둥게 둥게야

102 ④ 자장가 및 회아요(戲兒謠)

등등등등 등계야
우리애기 잘도논다

※ 1979. 2. 12. 김문영(여·85세)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회 아 요

불아불아 불어라
불불불 불어라
이새가 어디새냐
경상도 재령새냐
석수값이 얼마인가
경희세대 술한병
모기뒤다리 술한병

※ 1979. 2. 14. 김영길(남·58세·농업)
모현면 일산리 월촌

회 아 요

부라부라 불불 불어라
풀무딱딱 불어라
이쇠가 어디쇠냐
경상도 재룡쇠

풀무딱딱 불어라
석수값은 얼마가
술한병에 닭한마리
풀무딱딱 불어라
피우적을 불어라

※ 1979. 2. 17. 박정식(남·60세·농업)
내사면 고림리 임원

아기둥기할 때 하는 노래

1. 둥기둥기둥기 둥둥둥기야

날아가는 동산아
높이뻗다 봉산아
낮이뻗다 학산아
기러기소리가 왜소리냐 꺾

2. 불아불아불아 불불불아

부모에게 효자동이
동기간에 우애동이
일가간에 화목동이
사랑간에 웃음거리
불아불아불아 불불불불

※ 1978. 4. 박귀분(여·56세·농업)
이동면 묵리 묵밭

여 백

5 향두가(香頭歌)

〈향두가〉는 향도가·향두가·행두가·
상도가·상두가·상가상여 매김노
래·상여 소리·요령 잡기소리·회
심곡 등으로 불리우는 민요로서,
장례식 때 상여(喪輿)를 메고 가는
상여꾼(향도꾼)들이 부르는 장송가
(葬送歌)요, 만가(輓歌)이다.

여 백

상여노래

어제오늘 성하던몸
저녁나절 병이나서
[후렴] <어화넘자 어화>
날같은 이내몸이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느니 어머니요
찾느니 병수로도.
일직사자 월식사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김가문전 들어서서
팔뚝같은 쇠사슬로 목을메고
쇠몽치로 등을치고
가세가세 어서가세
속적삼 벗어내어
성명삼자 부르니
성며지고 가는인간
서터위쳐 못가겠네
아차한번 실수했네
가네가네 나는가네
복망산천 나는가네
복망산이 머다더니
대문밖이 복망일세
이제가면 언제오나
명년춘삼월 호시절에

108 [5] 향두가(香頭歌)

제사날이나 오려는가
명사십리 해당화야
네꽃진다 설워마라
명년춘삼월 돌아오면
네꽃은 다시 피련만은
인생한번 아차하면
웁이나나 싹이나나
영결중천 못오는길
맘대로 놀다가세
맘대로 쓰고가세
부모동기 있다한들
어느누가 대신가나
부모동기 다버리고
영결중천 나는간다
못다먹고 못다입고
서러워서 못가겠네
가세가세 어서가세

※ 1959. 12. 18. 문태현(남·53세·행상)
용인읍내

상여노래

한번남아 죽는이치를
어느누가 정하였나
백세천살을 먹어도
죽는것은 슬프구나

저울음이 뉘울음인가
 마에역 저무는날에
 양태진의 울음인가
 설복풍이 차가울제
 증평국을 이별하는
 소중난의 울음인가
 안맹한부친을 뒤에두고
 수중으로 뛰어들던
 심청이의 울음인가
 꿈밖일세 뜻밖일세
 엇그제 성하던 사람이
 유연히 병을언어
 병중에 신음하며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노라니 냉수로다
 인삼녹용 영약을쓰고
 삼신산에 불사약을
 어찌하다 못구했나
 천명이 이것뿐인지
 죽기로서 작정된몸이라
 백약이 무효가되고
 자손들의 충효가소용없네
 한번가면 못오는길
 일가친척이 많고 많아도
 어느 일가친척이 대신가며
 친구벗이 많고 많지만
 어느친구가 동행하나

110 ㉮ 향두가(香頭歌)

자손들의 애통한마음을
어찌이로 측량하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슬퍼마라
명년 삼월이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움이나나 짝이돋나
십년가고 백년가고
천년이 가도
일자소식 끊어지네
첩소산중 들어와서
깊은땅속 들어가서
홍대로서 이불삼고
땀장으로 지붕을삼고
송백으로 울을삼고
산새들의 벗이되어
만년유택을 정하였노니
인생의 이통로를
어느누가 마련하였나.

— 下略 —

※ 1978. 10. 24. 李鍾台(남·56세·農)

용인읍 윤학리

상여 노래

저승길이 멀다하나
대문밖이 저승일세
인제가면 언제오나
명년 삼월 꽃이피면오는가
부모처자 다버리고 이별일세
영~ 이별이야
이제가면 언제오나
(사자) 말하기를 재판관에 넘겼다
재판관에 넘겼더니
사자가 쇠사슬로 묶고
일가친척 있으니 소용없고
어느친구 대신갈까
약쓰니 소용없고
산삼쓰니 소용없다
이별이다 영~ 이별이다
—下略—

※ 1969. 안용석(남·79세·農)
내사면 제일리

행 여 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세계로 돌아가시

산천초목은 푸르렀는데
인생이 사자하더니 병이들어
이세상을 못살고
돌아가니 어찌하리
〔후렴〕 어하 늣차 어하
부모가 제실때는
부르더니 어머니여
찾더니 냉수여
약을쓴들 고칠순가
무너블로 경을읽어
경때기나 불랫더니
경떡효도 하나없고
실낙같은 목에다
태산같은 병이드네
월직사자 일직사자
쇠사슬로 목을걸어
쇠몽치로 뒤를치며
등을밀어 앞을끌고
계아무리 안갈손가
부모이별 처자식
이별하고 가더니
애피매쳐 못가겠네
못가겠네 못가겠네
저승길이 멀다하니
때문밖이 저승이다
여보소 창두꾼
발맞추어 떠나세
발연지를 지냈으니

어서 빨리 떠나세
근너산을 바라보니
한심하고 처량하다
산천은 옥어졌는데
깊은산중 들어가니 벗도없고
두견새는 슬피우네
처량하다 가련하다
산천 초목에다
진토 황토 묻고나서
흙으로 담을쌓고
잔디로 이불삼어
떼방으로 우울삼어
두견새로 벗을하고
나는간다 나는간다
이제는 아주갔구나

※ 1979. 2. 15. 손광득(남·85세)
이동면 묵리 장촌

상여노래

저승길이 멀다드니
[후렴] 오호~ 오~하 어허
대문밖이 저승일세
간다간다 나는간다
부모처자 다버리고

114 ㉮ 향두가(香頭歌)

북망산천 떠나면길
떠나가면 하직일세
끓은길도 끈은듯이
깊은곳도 낮은듯이
굵실굵실 잘도간다
이제가면 언제오나
다시뭇을 황천길을
다뭇먹고 뭇입은것
어느누가 호강하랴
오기는 왔소마는
[후렴] 에헤리 달고
집그리워 어이하리
명당자리 마련한것
위택이라 지어놓고
미련없이 떠나려다
나대왕 용왕님을
한시바빠 찾아뵈고
나살곳이 어디라고
큰절하고 아뢰야지

※ 1979. 4. 8. 권영철(남·43세·농업)
포곡면 도사리

상여 노래

이제가면 언제오나
[후렴] 오~하 오하 어허

명년 삼월 봄이되면
 꽃은다시 피련마는
 인생한번 가고보면
 다시올길 전혀없다
 해당화야 해당화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위마라
 꽃은한번 지고보면
 명년 삼월 돌아오면
 꽃은다시 피련마는
 인생한번 가고보면
 다시보지 못하노니
 저생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생일세
 일촉사자 등을밀고
 월촉자자 손을끌며
 어서가자 제촉하니
 할일없이 떠나가네
 처자권속 애통하나
 다시올길 전혀없네

※ 1978. 4. 22. 신명식(남·65세·농업)
 이동면 친리 584

상여노래

간다간다 나는간다

이제 가면 언제오나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일가 동행할까
〔후렴〕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친구벗이 많다한들
어느친구 같이갈까
못다먹고 못다입고
세상을 하직하니
원통하고 통분하구나
세상천지 나온사람
취덕으로 나왔는가
어버님의 뼈를빌고
어머님의 살을빌어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이세상에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려
부모은공 못다갚고
인간칠십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갚고
인간칠십 고회에
없던망녕 절로난다
못다살고 가는인생
원통해서 못가겠네

※ 1979. 2. 15. 교명주(남·50세·농업)
용인읍 호리 365번지

상여노래

저승길이 머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요
[후렴] 오호 어허 오허 어야
어린자식 뒤흔두고 가는이몸
눈물이 앞을가려 못가겠네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일가 대신가랴
어제오늘 성탄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약하고약한 첩첩한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흐르나니 눈물이요
나오나니 한숨이라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덕인들 입을쓰나
무녀불러 구설한들
굿떡인들 입을쓰나
판수불러 정임힌들
정떡인들 입을쓰나
짬이쌀 신고실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하탕에 수적씻고
중탕에 목욕하며

상탕에 메를지어
כות대 한쌍 벌려놓고
향로향에 불가추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하느님전 명을빌며
칠성님전 복을빌고
이세상에 나혼자선
인간삼십 다당해도
부모은공 못다갚고
인간칠십 다당하니
부모은공 갚을쓰나
우리오 어젯날 청춘이더니
오늘백발 그아니 원통하랴
—下略—

※ 1979. 5. 5. 유내성(남·49세·농업)
내사면 평창리 범밭

상여노래

이제가면 언제오나
[후렴] 오하~오하~오하~오하~
오는날만 일러주게
저승길이 멀다하더니

오늘내게 당해서는
 대문밖이 저승일세
 간다간다 나는간다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길로 나는간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태인사람
 누덕으로 태여든가
 아버님전 뼈를받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칠성님전 명을받고
 제상님전 복을받고
 이세상에 태어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아니갠고
 세상이 유수같이
 이삼십을 당도하니
 부모은공 갠아보세
 머리짜아 신을삼고
 혀는빼서 창을받고
 이눈빼서 징을받고
 부모님께 바치온들
 부모은공 갠을손가
 세월이 여류하여
 칠팔십을 당도하니
 없던망녕 절로나고

어제오늘 성튼몸이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느니 땀수로다
 무너블러 곁을한들
 굶餓이나 입을쏘냐
 맹인블러 경읽는들
 경떡이나 입을쏘냐
 백미서되 쓸고쓸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녹음대를 정히지어
 부처님께 바치웁고
 손발이당도록 빌었으나
 어느부처가 돌아보며
 어느신령님이 살려낼꼬
 백약이 무효하고
 천가지문복이 허사로다
 이때에 열라국에서는
 열라왕전에 부리는사자
 재판관의 명을받고
 일직사자 월직사자
 한손에 쇠봉치들고
 한손에는 쇠사슬을들고
 활동같은 굵은길을
 화살같이 달려가서
 달은문을 박차면서
 성명삼자 불려대니

아이고어떠니 나죽겠소
이때에 방안에는
곡성소리 진동하고
축적삼대에 초흔블러
지붕위에 올려노니
할일없다
할일없다

※ 1979. 7. 공회석 (남·40세·농업)
내사면 주북리 임원

상여노래

일가친척 많다해도
어느일가 대신갈까
등기일신 많다해도
어느등기가 같이가랴
성그럽고 약한몸에
태산같이 병이들어
무당을블러 곳을하니
곳의덕을 볼수있나
장님블러 경을읽어
경의수함을 볼수있나
어머니전에 살을빌려
아버님전 빼을빌어
칠성님전에 명을빌어

재석님전에 복을 빌어
성탕에는 수족씻어
중탕에는 목욕하고
이내일신 머리감어
다리한쌍 서서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비나이다
북두칠성 비나이다
일곱신은 어머니가 신으시고
여덟신은 아버님이 신으시고
그신이 다떨어지고
토끼총만 남었습니다
산의상차로 끌라서 신날을꼬고
중치루다 총을빌어
한심산에 나무를베어서
수심산에 짐을것고
눈물로 흙을개고
반가는 청춘이여
또반가는 명월이요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의수험도 볼수없고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이며
활대같이 굽은길이
솔대같이 곧게가고
찾나니 어머니요
찬물이나 냉수로다

쇠사슬로 목을끌어
쇠뿔치로 등을치며
어서가자 바빠가자
상감님 놓아주오
할말이나 하고가게
시장하니 점심식사하고
노자돈이나 타가지고가자
사자님은 금은전에 달겨들며
증명삼절 불러내며
대문을 내차면서
극락세계 가실적에
염라대로 가시려나
극락세계로 가시려나
염주대로 가시려나
어디로 가시려나
이제가면 언제오나
명년춘삼월에 꽃이피고
앞이피면 또다시옴세

※ 1978. 4. 22. 김석정(남·55세·농업)
포곡면 마성리 삼전

향 두 가

[선창] 어허~어허~어허~어허~
[합창] 어허~어허~어허~어허~
저승길이 멀다드니

124 [5] 향두가(香頭歌)

대문밖이 저승일세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가는인생
이세상에 태어나서
단백년도 못다살고
저승길이 멀다하여도
대문밖이 저승일세
떠~나 가~네
떠~나 가~네
정든집을 떠나가네
이제 가면 언제오나
정든고향 떠나가네
— 下略 —

※ 1979. 4. 6. 김영백 (남 · 52세 · 농업)
용인읍 호리 호동

향 두 가

가네가네 나는가네
북망산천에 나는가네
북망산천이 떠다더니
대문밖이 북망일세
명사십리 해당화야
네꽃진다고 서러를마라
명년춘삼월 돌아오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웁이나나 씩이나나
십년가고 백년가도
일자소식 끊어지네
초로같은 우리인생
이길 한번 당하며는
일가친척 많다한들
그누구가 대신하며
이웃친구 많다한들
그누구가 대신가랴
불쌍한게 인생이요
가련한게 인생일세
우정세월이 살갈아서
원수백발 돌아보니
부모은공 못다갠고
부질없이 나는가네
—下略—

※ 1978. 10. 24. 유학근(남·42세·농업)
용인읍 운학리

회방아 타령

에헤이이리 달—고
〔후렴〕 에헤이리 달고
오화세상 벗님네야
젊었다고 자랑마소
홍안백발 가까우니
인생살이 무상이라

어제 날에 성튼이몸
 태산같은 병이들어
 황천길이 웬말인고
 인간택년 산다해도
 병든날과 잠든날과
 근심걱정 다제하면
 사십평생 살다가니
 그동안을 사는것을
 온갖고락 겪었고나
 복망산이 멀다드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이산지를 택지할때
 어떤지수 택지했나
 본국도승 출입하고
 외국도승 택지했비
 산세명봉 살펴보니
 산지조종은 꿀툰산이요
 수지조종 황하수라
 꿀툰산낭맥 떠러져서
 함경백두산 되어있고
 백두산낭맥 이어져서
 강원도금강산 되어있비
 송악산 명기 타고나와
 왕건 태조 등극하고
 삼각산명기 타고나와
 이씨한양 등극했비
 북악산을 주봉삼고
 인왕산을 주산삼아

왕십리가 칭릉되고
 만리재가 백호되니
 중남산은 천년은이요
 과천판악이 안산이다
 동쪽으로 물을 건너
 광주산성 되어있고
 그산낭맥 떨어져서
 보개산이 되어있네
 이산줄기 버더나려
 서출동류로 내려와서
 이자리가 되었으니
 갈마음수에 명당인가
 금제포란에 대지인가
 장군대좌 질지인가
 좌—칭릉 우백호는
 귀각으로 벌려있고
 전—대하 경안천은
 홍천지지 근원일세
 이달구를 다질적에
 배마추고 등마취서
 만년유택 다져주오
 이자리에 묘를쓰면
 대대재상 나오리카
 왕후장상 나오리카
 묘를쓴지 삼년만에
 종가집에 영재나니
 한두살에 말을벌때
 손진장에 언변이요

세네 살에 클배우니
조맹덕에 필채로다
대—대로 문장나니
명문거족이 이아닌가
영결종천 하신조상
영세토록 안민하고
좌우에는 청송이요
두견새로 벼을삼아
주야장천 누었으니
이것이 낙이로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늙은이망녕 웃지마라
갱소년은 못하나니
늙은이를 우대하고
지성으로 효도하야
죽은뒤에 후회말세
무정세월 살갈으니
웬수백발 돌아온다
인간칠십 고래희라
망—녕은 절로나고
성하든몸 늙어가서
저와같이 죽어가니
살아생전 있을적에
선심공덕 많이하여
영생극락 얻어가세
— 下略 —

회방아 타령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자리를 잡을적에
 어떤지관이 잡았던고
 지술선생 도선선사
 천하명수 무학도사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앉아서보고 서서보아
 이자리를 잡았으니
 이자리에 산수를쓰면
 각도명기가 물려들때에
 함경도라 해산진땅에
 백두산이 솟아있고
 평안도라 영원땅에는
 묘향산이 솟아있네
 묘향산구경 얼른하고
 황해도로 내려오면
 황해도라 봉산땅에
 구월산이 솟아있고
 강원도로 가보면은
 강원이라 고성땅에
 금강산이 솟아있네
 금강산구경 얼른하고
 경기도로 내려오면
 과천판악산 분명하다

충청도로 내려가면
충청도라 공주땅엔
무등산이 솟아있네
무등산구경 얼른하고
경상도로 가보면은
경상도라 봉화땅에
팔공산이 솟아있네

※ 1979. 4. 1. 공희석(남·40세·농업)
내사면 주북리 임원부락

회방아 타령

간다간다 나뉘아간다
유정님따라서 나는가네
[후렴] <에헤이리 달고>
양유산천 늘어진
산천피플새가 아름답다
인간이별 만사중에
니같은사람이 또있느냐
병이드니 백발이오
면치못할 죽음이르다
천왕지팡 인창이시오
요순은탕 우무주공
덕향이어서 봉하였으며
말갈하는 소진장이도

육국제왕은 다달래도
 염라대왕은 못달래요
 성중바람 쓸쓸한데
 두견조차 슬피울어
 너도울고 나도울고
 같이울어 새워볼까
 심와삼경 깊은곳에
 같이울어 새워볼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위마라
 너는명년 춘삼월이면
 다시보려 오랜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청춘은가고 백발은오니
 인간백년이 허사로다
 황천길은 멀다해도
 북만산천이 여기로구나
 진구명산 만장봉에
 석색운방공 응상거리오
 숙귀는청룡 추립걸인데
 만만세 지금탕이라
 인간세상 나온사람
 물욕탐심을 내지마라
 삼인수심은 저재 후요
 만천량을 모아다놓고
 덕조가면 쓰고나 가지
 못다덕고 못다쓰고

시름업시 가는인생
한심하고 가련하다

※ 1979. 4. 3. 장의환(남·64세·농업)
용인면 삼가리 맥조현

희방아 타령

천지호란 생긴후에
일월정척 되었구나
산천이 개벽하고
만물이 변성했네
그산 낭백이 뜯떨어져서
동자공이 생겼구나
좌청룡 우백호하니
목마른 용이
물먹는 격이다
함박산이 주봉되고
삼봉산 노적봉되니
금시발곡이 될자리로구나
관좌고향에 임술산하니
천하명당자리 참 좋다.

※ 1979. 5. 13. 김원성(남·51세·농업)
이동면 천리 574번지

달구노래

태극이 조판하고
 오행이 상생극하여
 사시가 순서하고
 건곤이 배합되어
 천지만물 생겼구나
 팔도명산 구경할제
 산지조종 곤륜산이요
 수지조종 황하수라
 곤륜산 일지맥에
 백두산이 니봉하고
 좌청룡 판모봉은
 함경도에 명산으로
 두만강수 둘러있고
 우백호의 신성봉은
 압록강이 둘러으니
 이산경치 무궁하네
 이산구경한 연후에
 황해도로 내려와서
 구월산이 솟아있고
 대동강이 둘러으니
 이산경치 구경하니
 경 개또한 좋을씨고
 강월도로 건너가니
 금 강산이 솟아있고
 이산경치 구경하니

관동팔경 여기로다
 영월양양 흐르는물
 도당산봉 안고돌아
 소양강호 되셨구나
 경상도로 내려가니
 태백산이 생겼으며
 태백산의 명기받아
 경주도읍 되셨었고
 낙동강이 흘렀더라
 이산경치 또한 좋고
 전라도로 들어가서
 지리산이 생겼구나
 낙산사가 여기로다
 서산대사 제자로
 사명당이 이절에서
 좌선을 수도하여
 전성성불한 연후에
 선조대왕 즉위초에
 일본왜왕 항복받고
 조선을 복위했네
 전주남강 둘러있고
 이산명기 올려달아
 충청도 계룡산은
 공주금강 들렸으니
 부여팔경 여기로다
 경기도르 올라와서
 삼각산이 생겼으며
 한강수가 둘러있고

이산낭맥 내린명기
 봉학죽침 되엿더라
 봉에머리 터를뒹고
 학에등에 집지니
 이짚앞엔 옥조로다
 안산장등이 청룡이요
 후산낭맥 백호루다
 안하에 문필봉은
 문장제사 대대나고
 곤위봉에 창구봉은
 만적거부 날것이요
 백호정영 문필봉은
 수령방백 대대나고
 안하에 노인성은
 자손창성 할것이요
 우마육축 민성하고
 오편이 풍성하니
 이터 부귀 발목일세

※ 1979. 4. 2. 김형성 (남 · 48세 · 농업)
 포곡면 절대리

달구노래

인제가면 언제오나
 내년춘삼 봄이오면 돌아오리라
 [후렴] 예이리 달고질러

이 산소를 누가잡았나
삼각산 나른줄기
비공땅에 절을짓고
이 산소를 모실적에
금소밭아 되리라

※ 1980. 2. 14. 이봉식(남·61세·농업)
용인읍 남리 옥현

달구노래

군밤네— 군밤네— 군밤네—
[후렴] 에허어라 달구
여러분들 군밤래야—
요내 말씀들 들어 보소
한번 허리를 구털어서
이 다리 저 다리 맞춰가면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가까운 데 사람은 보거나 좋게
여러분들이 잘도 하슈
이 세상에 생겨날 적에
뉘 덕으르 생겼느냐
석가 여래 공으르다
아버님의 뼈를 빌고
어머님의 살을 빌어
이 세상에 생겨났지

한두살이 되고보니
 이삼십이 되었구나
 이삼십이 훌쩍넘어
 오륙십이 되었는데
 오륙십이 훌쩍넘어
 육칠십이 되었더니,
 우연히 병이들어
 어이구배야 지구배야
 어머니아버지
 배가아프다고 불러가면
 아파죽겠어요 아파서죽겠네
 어머니어머니 아파서죽겠소
 약국에가서 약을 쓰니
 약덕도 전혀 없어지고
 병원의사를 들여설랑
 진찰을해도 덕이없네
 무당을불러 굿을해도
 굿덕도 전혀없고
 탄신을불러서 굿을해도
 굿덕이 전혀없네
 장님을불러서 경을읽어도
 경덕이 전혀없고
 아이구아파 지구아파
 못살겠네 못살겠네
 영원히 못살겠네
 사자가 덩벼들어
 결박을 지어놓고
 가자가자 어서가자

138 [5] 향두가(香頭歌)

지옥으로 모셔가세
죽어 죽어 나는죽네
영원히 나는죽어
살았을적엔 먹고쓰고
거들거리고 놀아들보세
인생한번 아차죽으면
움이나나 싹이나나
영원히 무궁이요
에허어라 달구
에허어라 달구
에허라 내허 우—

※ 1976. 7. 조찬수(남·62세)
모현면 일산리

회심곡

여보시오 세존님께
요내말씀 들어보소
우리인생이 태어날제
어머님께 살을빌고
아버님께 뼈를빌어
십삭만에 탄생하여
진자리마른자리 갈아뉘어
고이고이 곱게길러
이다지길러 이삼세를 당도하여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할쏜가
이삼세가 다지나고
오륙세에 당도한즉
부모님의은혜를 생각하나
오륙세에 당도해도
부모은공 모를쎄라
칠팔세가 다지나서
십오세가되어 있던들
부모은공 모를쎄라
이타지도 모르면서
부모은공 못다갠고
이십세가 당도하니
부모은공 갠을쏜가
오륙칠팔세 다지날쎄
못 다갠은 은공
이십세가 다지나도
못다갠다네

※ 1976. 5. 전만길(남·60세)
모현면 배산리

여 백

6 성조가(成造歌)

.....
<성조가>는 지신밟기·지집소리·지
신밟기노래·땅다지기·터다지기·
땅밟기노래·터밟기노래·지경노래·
지집노래·안택가(安宅歌)·성주풀
이 등의 명칭으로 부르는 노래로서
가옥 또는 교량건설의 기초 공사,
그리고 상량식, 준공식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여 백

성 조 가

에헤라 지경이요
소반청 낙탄이 푹 떨어져서
〔후렴〕 에헤라 지경이요
이집터자리가 생길적애
뒷동산뿌리는 청룡이되고
수들봉뿌리는 백토가되고
앞시내는 조수가되고
배밀봉뿌리가 수구를막아
천부금당이되었으니
이집터자리가 천하의대지일세가
사람이나면 정승이나고
말이나면은 용마가나고
개가나면 외눈박이요
닭이나면 봉황이로다

※ 1978. 4. 8 고제순(남·59세·농업)
용인읍 호곡리 365번지

성 조 가

어여라 지경이요
성주번이 어대맨요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번일러라
〔후렴〕 어여라 지경이요
제비원에 술씨를받아

서평대평에 던졌더니
소보독이 되었구나
대보덕이 되었구나
그솔이 접접자라
도리중방 되었구나
대평소를불러 옥토끼를돌려메고
저산에올라 소목을내고
대산에올라 대목을내어
강산에 터를뒹아서
이집을짓기 이룩하세
어이더라 지경이요

※ 1977. 4. 8 정재화(남·76세·농업)
모현면 매산리

지경 노래

에어라 지경이여
[후렴] 에어라 지경이여
먼데사람은 듣기 좋고
가까운데사람은 보기 좋고
이집터에다 집을지으며
부므에게 효자동아
등지간에 우애동아
이집터에다 집을지으며
악아를이루고 자손만대 하고
에어라 지경이여

※ 1979. 5. 13 권학일(남·56세·농업)
이동면 천리 샘골

지경 노래

어기여차 지경이여
[후렴] 어기여차 지경이여
먼데사람 듣기좋고
가까운데 사람들은보기좋고
금두꺼비 다칠세라
가만가만 다져주소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나면 효자를놓고
딸을낳으면 열녀를놓고
어기여차 지경이여
어기여차 지경이여

※ 1979. 5. 20 신순갑(여·66세·농업)
이동면 덕성리 삼파

지경 노래

여보청춘 벗님들아
이내말 들어보소
천지지간 만물지중애
유인이 최귀라니
사람의 귀한바는
오륜의 이름이라
오륜을 마련후에

정신수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한연후에
보국충신 드랭이면
대장부가 활일이라
예라만수 대세~

창몽황룡이 노는대는
비늘이빠져 표가있고
청학백학이 노는대는
깃이빠져 표가있고
실랑신부가 노는대는
옥동자가 생겨나고
우리친구 노는대는
부귀영화 떠었으니
이에서 더 좋을소냐
예라만수 대세

※ 1979. 2. 13 이용택(남·81세·농업)
모현면 왕산리 789

지경 노래

에이여라 지경이요
이집터를 들을 적에
〔후렴〕 에이여라 지경이요
자좌오행 안을 놓고
바른격자 열두칸에~

삼칸대청 꾸미고서
이집짓고 삼년안에
백만장자 되리로다

※ 1978. 4. 22. 양재옥(남·50세·농업)
포곡면 영문리

지경 노래

에헤라 지경이요 에헤라 지경이요
가까운데 사람은 보거나 좋게
[후렴] 에헤라 지경이요
먼데 사람은 듣거나 좋게
봉양새 한쌍을 넣었으니
가만가만 다져주소
저기 하늘 저달속에
채수나무를 베어서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칸 집을 짓고
아들나면 수명장수요
딸을나면 열녀가 되고
소를먹이면 억대우요
개를먹이면 삼살개가 되고
닭을치면 황계수탉이 되네
에헤라 지경이야

※ 1979. 2. 17. 박보화(남·농업)
모현면 왕산리 독산

지경 노래

에이어라 지경이여
〔후렴〕 에이어라 지경이여
이집터를 말연할때
앞뒤를 돌아보고
뒷산내령 받아와서
이집터가 마련된네
이산내령 받아와서
이집터가 마련될때
자손나면 충신이요
딸을나면 열녀로다
에이어라 지경이여
아들나면 충신이요
딸을나면 열녀로다
에이어라 지경이요

※ 1979. 4. 3. 전만걸(남·63세·농업)
모현면 배산리 진해촌

지경 노래

에허라 지경이야 에허라 지경이야
〔후렴〕 에허라 지경이야
이집터를 장만할제
근근덕신 장만해서

한푼두푼 모아가며
 저축도 해나가며
 저축을 못하며는
 하루품을 팔아가며
 이돈 저축을 하여와서
 이런토지를 사서나와
 이집터가 마련이돼서
 이집터를 장단하여
 자손만대를 영광을두어
 애히라 지경이야
 이집진지 삼년후에
 부자성공이 다되어서
 후에 틀두고 생각할제
 무엇으로 장만했나
 시사때때 저축을하고
 한푼 절약하면서도
 목이말라도 술한잔못먹고
 배가고파도 쉬어가며
 이집장만을 하실때
 이집장만하시며는
 안채는 열둘을짓고자
 남향판을 놓고보니
 자자오향을 놓아야지
 자자오향을 놓고보니
 자손인들 많이뒤서
 아들이라면 칠형제두고
 딸이라면 삼형제뒤서
 십남매를 다기틀제

어미아티는 발이되고
 이자식을 다기르려면
 십남매의 원하는것이
 중학은그만 두고 소학을가르쳐
 부모에진 책임다하려고
 부모책임을 못다하면
 이것또 어찌다할쏜가
 부모님 생각할제
 부모같이 생각하나
 공부나잘해 대학가면
 부모를 그제아니
 아비된도리를 다할쏜가
 여봐라 자손들아
 아리의허리가 구부러졌네
 길마가되도록 가르쳐도
 나라의 성공을 다못하네
 에허라 지경이야
 이집진지 삼년이면
 자손만대 열녀를낳고
 효자충신 다낳을적에
 충신이면 영웅이요
 영웅호걸이 이집에서
 탄생하면 자리가종소
 이자리가 무슨자린가
 이자리는 용웅자리
 에허라 지경이야
 동네분들 들어보소
 저의집짓느라 수고가많은니

약주한잔 잡수시오
밤은점점 야심한데
열두시가 다되어서
이제부터 그만하고
약주한잔을 대접하니
편히가서 쉬어쉬어
이만저만 다그만두고
어주축수에 산춘이면
무릉도원이 여기로구료

※ 1976. 9. 전만길(남·60세)
모현면 매산리

지경 노래

에허라 지경이야
〔후렴〕 에허라 지경이야
지경맞는 우리일꾼
이집터를 잘담으면
천년만년 무강하지
우리가이지경을 잘다지면
천년만년을 무강하고
자손만대 무강일세
하나들이 닦더라도
열심으로 닦는것이
열심으로 닦아주세

에허라 지경이야
오늘집을 짓게되면
내일낮은 효자가나고
오늘날은 효자가나네
우리가열심으로 닦아주세
지경소리가 왜나왔나
에허라 지경일세
흙을단단히 닦잔말일세
이팔청춘이 넘어나도
수고를 너무해서
주인양반이 수고하네

※ 1976. 7. 김삼남(남·77세)
모현면 능원리

터 다듬기 노래

학의 머리에다
[후렴] 에헤야 지경이야
터를 다듬어서
칠년단년
터를 다듬을제
학의머리를 다칠소나
앞에노적봉이 비쳤으니
이터를 다듬은후에
집을지으면 영웅열사
날곳이 분명쿠나

※ 1959. 8. 22. 임문수(남·48세·농업)
기흥면 서천

지경다지는 노래

에헤라야 지경이야
〔후렴〕 에헤라야 지경이야
아랫동네 일꾼임네
윗동네 일꾼임네
에헤라야 지경이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은 낳으면 효자충신
딸낳으면 열녀되고
닭이나면 봉황이되고
돼지를 먹이면 동도시되고
그봉황이 앞논에다 자리잡고
한날개를 툭툭치니
이리천석 쏟아지고
두날개를 툭툭치니
저리천석 쏟아지네

※ 1979. 4. 3. 공회석(남·39세·농업)
내사면 주북리 임원

터닭는 노래

에이여라 지경이요
이터를 닭아놓고
장성불사 하오리다

154 ㉞ 성조가(成造歌)

에이여라 지경이요
자좌오행 좌향농고
금석으로 구들농고
인삼으로 불을때고
부연달아 풍경받고
오지개 울려 덮고
삼칸대청 부암단에
이집짓고 삼년안에
장성부자 되오리다
에이여라 지경이요

※ 1979. 2. 17. 양재옥(남·52세·농업)
포곡면 영문리 427



7 타령(打令) 외

〈타령〉은 잡가(雜歌)의 총칭으로 서민 대중의 일반생활과 술자리 등에서 널리 불려지는 노래로서, 그내용도 다양하다. 〈각설이 타령〉 〈범벅 타령〉 〈담바귀 타령〉등이 우리지방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다.

여 백

장 타 령

한일자. 들고나보아
일업이 승승애
야승승 밤중애
셋별이 완일하다
〔후렴〕 드르르릉 폼바 잘한다
두일전에 들고나보아
양놈애 소리가
북소리 기양애 춤을춘다
석삼자를 들고바
삼십먹은 노총각
장가들기만 늦어간다
녁사자나 들고바
사시나 장천애
바뿐길 춤심차리다 늦어간다
다섯오자 들고바
오오말어 오신사또
오유콜라가 발키지요
어푸네 볼수허는
진중무형을 어찌 모르리까
여섯육자나 들고바
육공의 유로서
소진이도 유우항을 달래건만
유벌비상에 매친혼적
유공호정에 가득하니
유빈과속 다버논데

대육신을 다 찢어져서
일곱칠자 들고바
칠영칠영 편머리
여덟팔자나 들고바
팔자나 좋다
광태나금은 모두
낙시물에 넣고
세월가기만 기다린다
아홉구자나 들고바
구척애 장성애 노장승
백발염주 목에 걸고
염블허기만 세월이라
열십자 들고바
내가 너의선생이다
너는나보다 더잘한다
경상판사의 자재가
철로감사를 맞아서
동전한푼에 헐려서
요모양 요꼴이 되었네

※ 1979. 4. 8. 박상운(여·71세)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둘레 타령

에 둘레오

어 둘레야

에 둘레오 에에 에이야 둘레오 에에이 우~

좋다좋구나 그러면그렇지

[후렴] 에에이 둘레오 에에이야 둘레오

들렸네소리를 참잘하면

술이나생겨도 석잔이생기네

백사진눈에 모를십어실랑

장없이 훨훨나와서

[후렴] 에에 에이야 둘레오

※ 1976. 5. 박제근(남·53세)
모현면 매산리

담바귀 타령

귀야귀야 담바귀야
동리나얼싸나 담바귀야
네의구비 좋다더니
대한국을 나왔는가
은도싫고 금도싫다
담배씨한개를 가져왔네

담배씨 베어놓고
옥이나금이나 길러놓고
담배잎을따서 장두칼로
어슷비슷 썰어놓고
늪은이쌘지도 한쌘지
꿰은이쌘지도 한쌘지
담배한델 피워보니
묵구멍에서 실안개가 돈다

※ 『용인군 실태조사』(1976.) p. 16에서 채록

담방구 타령

구야구야 담방구야
네국은 엇다두고
나의 대한에
국으로 나왔느냐
우리국도 좋겠마는
대한애국으로 나왔네

※ 1969. 5. 8. 정덕준(여·74세)
내사면 제일리

범벅 타령

어하동동 범벅이야
누구잡술 범벅이나
김도령잡수실 참살범벅
이도령잡수실 멧쌀범벅
정월에는 달떡범벅
이월달엔 씨래기범벅
삼월달엔 쭉떡범벅
사월달엔 베틀범벅
오월달엔 수리치범벅
육월달엔 밀떡범벅
칠월달에는 풋수수범벅
팔월달에는 꿀떡범벅
구월달에는 귀리범벅
시월달에는 무시루범벅
등짓달에는 갖죽범벅
섯달에는 호떡범벅
일년열두달 범벅을 갖세

※ 1979. 2. 17. 김익채 (남 · 49세 · 농업)
용인읍 호리 365번지

잡가(雜歌) I

에에라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나보소
망아지 낳거덩 제주로보내고
귀동자 낳거덩 서울로보내세
우리들자녀도 신교육을
누구나할겁시 지켜나 보세
에—라 상사디야

※ 1983. 9. 3. 이담자(여·53세)
용인읍 남리 384

잡가(雜歌) II

상주장단은
곡성이요
청주안주는
대구라
이질배질
곱등고개
떡던중에는
별미로다

※ 1981. 4. 오진근(남·62세·농업)
원삼면 축능리

잡가(雜歌) Ⅲ

왔다왔소 나여기왔소
아마도 나여기올때
구름안개 쌓였겠오
아마도 나여기올때
입으로 입으로
요나요나해서 찾아왔소

※ 1978. 6. 권대병(남·70세·농업)
포곡면 둔전리

투전 뒤풀이

- 일자 한장을 들고보니
 일월이라 일일날은
 일년중 제일일이요
 남녀노소 오락가락
 신면혜가 장관이요
- 이자 한장을 들고보니
 이월이라 한식날은
 개자추의 냇이와서
 옛집을 찾고
- 삼자 한장을 들고보니
 삼월이라 삼진날은
 연자 새끼 옛집을찾고
- 사자 한장을 들고보니
 사월이라 초파일날
 이집저집 등불있어
 낮보다도 밝구나
- 오자 한장을 들고보니
 오월이라 단오날은
 년중지가절이라
 녹의홍상 아이들은
 오락가락 놀면서
 추천장을 보는구나
- 육자 한장을 들고보니
 육월이라 유두날은
 흉노중에 덩고덩다

할일은 별로없고
 밑절병이나 하여라
철자 한장을 들고보니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가 그리워살다
 일년일차를 상봉하야
 만단설화 다하누나
팔자 한장을 들고보니
 팔월이라 추석날은
 백곡이 새로나고
 세월이 풍성하니
 우리같은 작설이
 마음대로 놀아보세
구자 한장을 들고보니
 구월이라 구일날은
 천리타향 고객들은
 집생각이 간절하다.
—下略—

※ 1979. 2. 10. 박상운(여·71세)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구(九)자 풀이

구구팔십 일광노(一光老)는
 여동빈 찾아가고
 팔구칠십 이군불사(二君不事)
 제왕축에 충절이요
 칠구육십 삼노동공(三老童公)
 한태조를 차세(遮說)한다
 육구오십 사호선생(四皓先生)
 상산에 바둑두고
 오구사십 오자서(五子胥)는
 동문(東門)에 눈을걸고
 사구삼십 육수부(六秀夫)는
 보국충성 지극하다
 삼구이십 칠대국(七大國)은
 춘추 전국이요
 이구십 팔진도(八陳圖)는
 제갈량의 병법이다
 일구 구궁수(九宮數)는
 하도략서 이아닌가

※ 82. 10. 12. 최희면(남·27세·공무원)
 용인읍 호리 154

절 개 가

신구명신 만상봉에
바람이분다고 설어위하랴
성죽같은 굳은절개
매때린다고 허락하랴
몸은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모를쏘냐

※ 1979. 2. 11 천영숙(여·62세)
용인면 고립리 임원 195

두견화가

춘풍 건네시에
애를 태우는
저 두견화야
도래방석 어디두고
내창자회 슬피우나
밤중이면 울음소리
억지로잠이 절로깁다
일찌구나 지화자 좋다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 1979. 2. 17. 이재천(남·63세·농업)
포곡면 신원 2리

봄 소 리

화한춘성하고 만화방춘이라
때좋다 멈을내야
산천경계 구경가자
죽장망혜 단포지루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사에 흥낙들은
일연일도 다시피여
춘색을 자랑하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성채정은 창창울울하고
물속에 잠든나비
지축없이 날아든다
돌상맴비는 변판금비요
하관전문비는 분분서류라
과다정저는 일년풍이요
삼천가절이 좋을시고

※ 1979. 2. 11. 천영숙(여·62세)
용인면 고림리 임원 195

양류가(楊柳歌)

양류상에 앉은 피꼬리
 제비만 뛰어서 후린다
 [후렴] 애라 좋다 더덤석 안고서 흥흥
 요것이 내사랑
 양류침침 늘어진가지
 피꼴새가 아름답다
 세류칭풍 비껴후에
 피꼬리는 노래하네
 이화도화 난만한데
 날아드니 봉접이라
 양류세지 천만사인들
 가는춘풍을 잡아매나
 방초쳐쳐 우거진곳에
 황봉택접이 춤을춘다
 양류세지 사사룩하니
 오류촌이 여기로다
 작작요요 벌나비쌍쌍
 양류칭칭 피꼬리쌍쌍
 꽃을찾는 벌나비는
 향기를쫓아 날아든다
 객사칭칭 유색실은
 나귀매었던 버들이라
 양류가지 푹걸어서
 피리만들어 불어볼까
 무정세월 한허리를
 양유사로 매어볼까

※ 1979. 2. 12. 이상용(남·63세·농업)
 도현면 일산리 235

행 실 계

꽃댕여를 심던밭에
쇠고짚신이 윈말인가
금가락지 끼던손에
호미자루가 윈일인가
금쪽도리 쓰던머리에
오줌동이가 윈일인가
아무쫘룩 잘살아보세

※ 1979. 2. 12. 이창(남·63세·농업)
내사면 추계리

박연폭포

박연폭포 흘러가는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든다
〔후렴〕 에허야 에허야
 종구 좋다 어르름아 디여라
 내사랑아
박연폭포가 제아무리깊다해도
우리네양인의 정만은 못하리로다
천길만길은 뚝떨어져살아도
정든임떨어져서는 나는못살겠네
이나라 재판울못하면 만국재판울할지라도
내말한마디만 잘한다면 백년기약이 된다

※ 1976. 조찬수(남·62세)
모현면 일산리

사 발 가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 퍼벌썩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 김도 안난다

[후렴] 에헤야 어하

어여라 난다 디여라

허송 세월을 말아라

푸룻푸룻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정든임 오기만 기다리네

가을바람 슬피불어

낙엽이 우수수지고요

귀뚜라미 슬피울어

남은간장이 다녹는다

※ 1976. 조찬수(남·62세)
모현면 일산리

오돌또기

내~너리구 절싸말아라
사람의삼신 간장 에루아 다 녹는다
무정밤초는 해마다 연년이 오건만
한번가신 우리낭군
어느시절에 만나보나
[후렴] 널릴리 너리구 절싸 말 말아라
 사람의 삼신 간장 에루아 다 녹인다
인왕산 세당계 속에
빼꾸기 한마리 녀을그리어
밤을새설랑 울고있네
옥궁옥화가 에루아 정든님보내고
수십만 한탄해 잠을다못자는구나

※ 1976. 조찬수(남·62세)
모현면 일산리

지계 동발

아니아니 노지는못하리라
 한잔백발 노인들어
 이내소식 전해주마
 인근포시 하였으니
 인탄매인 들어보소
 인간가슴 썩을적에
 이내풍정 들어보소
 그리하던 이내몸이
 이군하고 짝이없구나
 열씨구나 좋다
 이천백발을 어디다두고
 부모님시켜서 지계틀지나
 아이구지구하는
 곡성은 웬말인가
 나는가요 나는가요
 어머님따라서 가실곳을
 아버님따라서 내가야요
 춘분백실을 흔들적에는
 고생하던 우리 부모
 백살모시자고 내가살지
 예순백살을 사실것을
 육십만먹으니 웬말인가
 열씨구씨구 좋구나

※ 1976. 황제하(53세·남·농업)
 모현면 매산리 중천

노 인 가

무정한것은 이월일래
어제청춘 오늘백발
백발은 누구를 위할쏜가
노세노세 젊어노지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남기라도 고목이되면
오던새도 끊겨가고
꽃도뿔다 낙화가되면
오던나비도 끊겨가네
노세노지 젊어노지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 1976. 5. 김삼남(남·77세)
모현면 능월리

원 가(怨歌)

남실남실 바닷가에
우리오빠 두정하네
울개 가면 또언으면 울개아닌가
동생 한번 가면
또다시 돌아오라
이몸죽어 원이되어
뒷동산에 뼈꾸기되어
오빠 머리밀에
슬피 올리라¹⁾

※ 1979. 2. 13. 조병재(42세·남·농업)
마평리 신집 668-11

1) 시누아, 울개가 강마물에 떠내려가는데 오빠가 손이 모자라서 울개만 전지교 동생은 못
져 오빠를 원망하며 부른 노래라고 함.

여 백

8 동요(童謠)

.....
<동요>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유희요(遊戱謠)가 대부분이다. 주로 다른 아이들을 놀리면서 부르거나, 동물(곤충)을 가지고 놀면서, 혹은 기후 변화를 बता며 부르는 노래가 많다. ‘방아개 비 쫓어라’, ‘까까중’ ‘해야 나오 너라’ 등의 노래가 이에 속한다.

여 백

1. 유희요(遊戲謠)

I

소나무밑에 뻗뻗니
뻗뻗니밑에 송충이
송충이밑에 껌벅이
껌벅이밑에 훌쭉이
훌쭉이밑에 찹찹이
찹찹이밑에 낭떠러지

※ 1983. 7. 임원화(여·24세)
내사면 주북리 박성

II

이거리 저거리 작거리
인사만사 주머니끈
작두말아 장두칼
제비쪽지 모강지
오리랑 납작 증기팽

※ 1983. 4. 최용순(23세·여)
구성면 마북리

III

진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와사 인사합시다
짱게이서 진사람은
빨리빨리 나가주세요¹⁾

※ 1979. 4. 3. 박찬경(여·13세·학생)
이동면 서리 중덕 337

IV

내동생은 곱슬머리
거구장이 내동생
아빠가부를때는 꿀패지
엄마가부를때는 왕자님
누나가부를때는 두꺼비
어떤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²⁾

※ 1979. 3. 31. 오민숙(여·12세·학생)
내사면 남쪽 2리 평대부락

1) 줄넘기를 하면서 부른 노래

2) 여자아이들이 고무줄하면서 부르던 노래

V

까치야 깍—깍
어디로가니 산넘어간다
무엇하러가니 새끼치러간다
몇마리켰니 열두마리켰다
어디에웠니 볍아먹고지적먹고
다—먹었다 양두자리꼭끼오¹⁾

※ 1979. 4. 1. 김연동(남·13세·국민학생)
용인읍 김량장리 서구 331

VI

인절미가 미가 시집을 간다네
꼬꼬물 향단에 화장을 하고
새빨간 장단위에 올라 앉아서
어서 갑시다 목구멍으로²⁾

※ 1979. 4. 7. 김영길씨
이동면 서리 중덕

1) 다리를 밟대고 개입을 할 때 부른 노래
2) 꼬마들이 고무줄을 넘으면서 부르기도함

VII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우리선생 제실적에
엽서한장 써주세요
한장말고 두장이요
두장말고 세장이요
구리구리 멧팅구리
짱 께이 뽀야¹⁾

※ 1982. 11. 3. 이시예(여·12세·학생)
용인읍 남리 평옥

1) 마주앉아서 서로 양손을 맞대고 장난하며 부르는 노래임

2. 동·식물요(動植物謠)

연꽃 노래

피었네 피었네
무슨꽃이 피었나
연꽃이 피었네
피었다고 하였더니
불등안 멈췄네
멈췄네 멈췄네
무슨꽃이 움쳤나
연꽃이 움쳤네
움쳤다고 하였더니
불봉안 피었네
피었네 피었네

※ 1979. 4. 8. 박상운(여·71세)
포곡면 둔전리

아리랑 꿈꿈

아리랑 꿈꿈
절래꽃 등실

릴리리 쿵덕쿵 쿵쿵
응애둥아 응애둥아
아리랑 콩콩
절래꽃 동실
릴리리 쿵덕쿵 쿵쿵
응애둥아 응애둥아

※ 1979. 5. 15. 김씨할머니(여·84세)
용인읍 마평리

나비 노래

나비나비 벌나비
나비나비 흰나비
나비나비 노랑나비
배추밭에 흰나비
장다리밭에 노랑나비
팔랑팔랑 잘날은다
팔랑팔랑 춤을춘다

※ 1979. 2. 12. 박귀분(여·56세·농업)
이동면 묵리

새 노래

날아라 날아라 새여
멀리멀리 날아라 새여
눅집짓고 언제 또오리

※ 1979. 2. 22. 용인읍 김량장리 북구에서

기러기 노래

기러가 기러가
빨리빨리 가거라
앞서가는건 양반
뒤에가는건 상놈
네뒤에 범따라간다
빨리빨리 가거라

※ 1979. 2. 20. 박귀분(여·56세·농업)
이동면 묵리

두꺼비 노래

두점아 두점아
혼집줄께 새집다오
새집 안주면
네신세 망한다

※ 1979. 4. 3. 김복규(남·14세·학생)
용인읍 해곡리

3. 풍소요(諷笑謠) 및 기타

I

앞니빠진 갈강새
웃니빠진 갈강새
우물앞에 가지마라
수탑한테 차인다
암탑한테 차인다¹⁾

※ 1979. 4. 2. 김영식(여·47세·농업)
원산면 사암리 사전 345

II

앞니빠진 금강새
운물결에 가지마라
우물결에 가면
붕어새끼 웃는다²⁾

※ 1979. 4. 3. 김복규(남·14세·학생)
용인읍 해곡리

1), 2) 앞니가 빠진 아이를 놀리면서 부르는 노래임

신발 말릴 때 하는 노래¹⁾

I

때때 말러라
양지밭에 말러라
들개밭에 말러라
참개밭에 말러라

※ 1979. 6. 박귀분(여·56세·농업)
이동면 묵리 묵방

II

때때 말러라
단뿔대 말라라
고무신 짝 말라라
반짝반짝 말라라

※ 1979. 4. 3. 박찬경(여·13세·학생)
이동면 서리 중덕 337

1) 목욕을 한 뒤 옷을 말리며 부르는 노래. 고무신 두 짝 바닥을 서로 맞치면서 부른다.

Ⅲ

때 말라라 뎡방아
 같이 말라라
 때 말라라 말라라
 내고무신
 어서 말라서
 내발의 왕되어주오

※ 1978. 4. 3 김복규(남·14세·학생)
 용인읍 해곡리

Ⅳ

때때 말러라
 정기정기 말러라
 바닷물이 깊으니
 한강물이 깊으니
 바닷물이 깊으다
 참빛주게 빛나라
 열개빛주게 빛나라
 해야해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밤따라먹고
 장구치고 나오너라¹⁾

※ 1979. 4. 8. 고미옥(여·12세·학생)
 용인읍 호 2리

1) 여름에 냇가에서 젖은 옷을 말리면서 부르는 노래임.

복 바 위¹⁾

바위야 바위야 복바위야
달래야 달래야 수달래야
구름같은 말을타고
천리길을 나서보니
복자돌아 문열어라
은자돌아 문열어라

※ 1979. 4. 8. 이동례(여·56세·농업)
이동면 묵리 한덕

1) 동리에 복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옛날 어떤 벼슬 높은 사람이 길을 지나다 이 바위가 좋아서 지어 붙였다는 것으로 이동례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불러온 노래라고 한다.

여 백

9] 내방가사(內房歌辭)

여기 소개하는 <내방가사>는 약 100여년 전부터 우리 교장에 전해져 온 것으로, 시집가는 딸을 불러 자신의 경험과 이웃집여인의 생활을 예로들면서 부도(婦道)를 교육시키는 내용의 계녀가(戒女歌)이다.

여 백

계녀가(戒女歌)

어와 세상사람들아
불행하다니 내몸이
○○○의 손녀로써
금의옥식 귀니 길어
녀공을 배와내니
월하에 슈노귀는
월기의 깃짜기는
열녀전 효행녹의
행동거지 처신범절
금의옥식 싸여시니
괴이한 별미차담
원앙금 흥축하의
세시복남 조흔시절
설낭옥매 시비들노
만화방초 화원상의
칭풍명월 녹음중에
질거이 지냈더니
고르고 다시골나
○○○의 손부되어
가산이 영채하셔
사벽이 공허하니
허다하인 그저가니
신행에 왔던하인

니내말삼 들어보소
녀자가 되어세라
만벌도 조권마는
오륙세 피은후에
재조도 비범하다
항아의 슈법이요
직녀의 솜씨로다
인의예지 외와다나
위아니 총찬하리
괴한을 엇디알리
입맛업서 못다먹고
책자도 구경하고
쌍옥도 던져보고
투호도 던져보고
춘경도 구경하고
황앵성도 들어보고
년팡이 십오세라
○○에 출가하니
문벌은 조권마는
슈간초옥 뿐이로다
우린들 잇슬소나
도리어 우습니라
취죽인들 잇슬소나

허다하인 그저가니
 후행왔던 오라버니
 하릴업다 도르가자
 오라버니 실언이요
 너자의 몸이되어
 부부를 정한후에
 난편을 좇는날에
 별당화원 조흔집은
 소슬한 수간초옥
 출가의인 생각말고
 현구고 삼일후에
 감지로 구고봉양
 은죽절 존당잡혀
 사오일 지난후에
 혼슈가 만컨마는
 친가의 약간구제
 헐벗고 배급흐기는
 친황씨 서방님은
 년만하신 부모는
 암상한 시뉘들은
 뜻고도 못듯난체
 말못하는 병어린체
 무죄하고 애매한말
 년만하신 부므말삼
 친정생각 하는마음
 구고압희 웃난낫치
 계개떡 보리죽을
 녹승묵삼 승포를

도리어 우습니라
 울며보고 하는마리
 예디두고 엇디가리
 가잔마리 실언이요
 삼중지의 잇셔스니
 난편을 좇사오니
 빈부를 가릴손가
 친부모의 옛집이요
 구고계신 내집이라
 평안환가 하옵소서
 쥬야로 드러가니
 무어스로 하잔말고
 쌀팔고 반찬사니
 그식이 장식이라
 글노엇디 지탕하며
 글로엇디 당할소냐
 사람이 못할배라
 글일거 무엇하리
 다만망녕 뿐이로다
 업는모해 무삼일고
 보고도 못보난체
 노염업난 병신인체
 고기속여 잠잠들어
 향여혹시 그역한가
 엇디감히 사색하리
 제즐거워 그려한가
 탐탐하여 잠식하고
 가늘고 곱다하며

기울고 푸른샤발
 입곱되 파더온쌀
 대견타 하는말은
 파기명 추존키는
 날고기는 개달긴들
 부인의 목소래가
 해가져 황혼디면
 달기우러 새벽되면
 궁궁엄궁 하는마음
 향여혹시 눈에날가
 친가에 편지할제
 신신차는 달나소래
 번번이 엇디하리
 부모의 주리심은
 압문에 살만남고
 동지숫달 찬바람이
 문박게 세우오면
 설미를 굶지불너
 도라와 하는마리
 녀치업시 또왔나냐
 한심하다 니내몸이
 전곡을 모로더니
 이대도록 되엇는가
 수족이 성성하니
 어니뉘가 시비하리
 분한심샤 풀쳐먹고
 김부자니 부자가
 밤나즈로 힘셔벌면

눈에차서 조타하며
 꾸어온 두되콩을
 뜻슬순케 하오미요
 시가를 존승이라
 으룬압해 감히치며
 문박계 감히나며
 죄아니딘게 다행하고
 오날엇디 또보넬고
 시각인들 이딜소냐
 조심도 무궁하다
 서른샤정 부지럽다
 한번두번 아니여든
 자식된 이내마음
 뉘죄라 하잔말가
 뉘벽에는 외만나며
 살쇼득키 드리불고
 방안에 큰비온다
 동네집에 보넛더니
 전에꾼쌀 아니잡고
 두말말고 도라가라
 금의옥식 껴여질너
 일조에 빈천하기
 이목구비 갖치잇고
 재힘썩 브러시면
 천한푸을 면하리라
 치산범절 힘쓰리라
 씨가근본 부자런가
 낸들아니 견줄소냐

오색당사 가는실을
 유험긔 큰베틀이
 할님쥬셔 복이며
 녹의홍상 저녁치장
 어린아희 곁웃시며
 원앙침 슈노키와
 나지면 두필이요
 뽕을따 누에치며
 때를차져 힘써하니
 고은의복 던져두고
 가지외를 굴게길너
 달글치며 개를쳐서
 전역에 등을켜서
 알알리 힘써먹고
 풀이모여 냥이되고
 판이모여 백이되고
 압들의 논을사고
 초막홀고 집을질제
 안빵대청 행낭몸체
 구을도리 선자춘여
 완자창 가루다지
 광삼간 부덕삼간
 안팎중문 소슬대문
 가마춧치 죽죽이며
 오려타작 일천석은
 늦벼타작 삼천석은
 논도지 이천양은
 시집은지 십년만에

울울리 자아내어
 필필이 짜아내니
 병사수사 중복이며
 한삼복건 소년의복
 팔십노인 핫웃시며
 봉황당문 짜기틀
 밤이면 다섯가지
 전담으더 농사하기
 가업이 초성이라
 몽당치마 뜯쳐입고
 동시에 파라오며
 장문에 파라온다
 새벽밥을 이어하야
 푼푼이 모와내니
 냥이되여 판이되며
 백이모여 천이된다
 텃들의 밧슬사서
 집치장 불작시면
 내외분합 물넉되와
 대접바침 분명하다
 국화색님 제법이라
 마구이간 근감하다
 노새나귀 비려서고
 슈청한님 쌍상이라
 천짜고에 싸아두고
 지짜고에 싸아두고
 요농소치 유족하다
 가산이 십만재라

날마다 소를잡아
 능나금슈 오슬지어
 뜨난사람 오슬주고
 혼인장사 못지내면
 궁교빈족 못사나니
 가간의 허다오용
 아들형제 굶제하니
 내외해로 부귀하니
 딸을길러 출가하제
 난편대접 극난하다
 천정인연으로
 백년고락이
 만일잘못 피쳐서
 독수공방 찬방안에
 죽은사람 생각하면
 산사람 불화하면
 만나보면 눈흘기고
 남남깃리 서로만나
 인정이 끈어지던
 매물하다 남자마음
 애달아 그리말기로
 버인정 다시들며
 딸아딸아 아기딸아
 지아버는 하늘이요
 딸이칭칭 늙흔하날
 녀자의 제일행실
 남자의 뜻슬바다
 식성을 마초와서

부모를 봉양하고
 월철리 가라입고
 주린사람 밥을주며
 돈을주어 구제하고
 내힘써 구제하니
 일롱이 백금이라
 벼슬도 혁혁하다
 팔자도 그록하다
 손을잡고 일은마리
 부부유별 잇서스니
 배필이 되엿시니
 니사람에 잇섯도다
 한번눈에 나게되면
 누를의지 하잔말가
 꿈속에나 반기건만
 백년의 원수로다
 못난말 편잔이라
 정을매져 유별하니
 남만도 못하니라
 도로키기 어려워라
 아무리 후회한들
 업친물 달을소나
 부디부디 조심하라
 지어미는 따헌이라
 따이엇디 결을소나
 유순하미 웃듬이라
 언사를 순이하고
 음식을 공경하며

성을내면 우습웃고
 드러운것 보일세라
 한번보고 두번보면
 초갓슨 어린실낭
 그래도 하날이라
 장성하야 저죽나성
 하날이 하날일을
 남자가 유약하고
 음탕이 괴상하고
 재앙이 자로잇서
 신하가 충성하면
 안해가 현철하면
 한푼두푼 썰되라도
 비루하다 투낭일절
 죽기까지 공경하야
 압흘보아 거름것고
 제사음식 차릴때의
 긴차는 헛우숨을
 신을쓰러 기침하야
 행동그지 처신법절
 등잔위의 남보기와
 소인의 행실이요
 이웃집 시비지설
 비복등의 그른말을
 찬찬의복 꺾계입고
 제물을 제가추어
 남의집 부인들과
 잇고도 간선탄탈

걱정하면 황공하고
 용열한말 들을세라
 자연의가 상하나니라
 수이보기 부대마소
 질노하면 어러우니
 소박하면 엇기할고
 파이엇디 막을스나
 녀자가 장성하면
 가산이 쇠퇴하야
 망가망신 되난리라
 국가이' 태평하고
 가택이' 안락이라
 눈을괴여 부대마소
 그아니 겸자는가
 노인갓치 대접하며
 생각하야 말을하고
 부정할가 조심하며
 어룬압헤 웃지마라
 지정여서 문을열고
 진중이 배와하소
 문박게 말듯가는
 남의집 의령말과
 입에담아 부대말며
 못듯난대 하지마라
 흘버신이 웃지말며
 남이웃게 하지마라
 서사왕복 하지말고
 조라되니 부대마라

수숙간에 예를차려
 어둔밤의 호정추립
 마음을 깨쳐먹어
 조상전 기명들을
 그릇비록 얹드래도
 악한말 부디마소
 부모의척 물건
 효도의 웃듬이라
 성효를 패상키는
 효제충신 법을파다
 하다가 못할지언정
 내나이 오십이나
 등방화축 첫날밤과
 하날아래 그른부모
 저건너 괴똥어미
 너도들어 알려니와
 저당초 시집올제
 인중문 밧중문에
 쌀노적 콩노적을
 우귀하야 오든날의
 눈을떠 둘러보니
 차달상의 허다음식
 무신배가 그리곹하
 트림하고 방귀소래
 허다빈객 시비드리
 삼일 지낸후의
 담에올나 사람보기
 마르전치고 깨꾸짓기와

주고받기 서로말며
 등축업시 부대마소
 어룬압해 졸디마라
 간슈하야 유전하고
 재기에 먹지말며
 제신명에 해로니라
 상치말고 보전하면
 제 몸을 천이도라
 불효의 제일이라
 아모조록 배와하소
 아니함과 갖틀소나
 난편에게 조심함은
 일부인들 다를소나
 잇단말 못드렀다
 시집사리 하든말을
 다시일너 경계하자
 가산이 누만재라
 노복이 버러잇고
 뉘아니 부리하리
 가마문에 나서면서
 행동그지 해연하다
 밤깨물기 괴히하다
 국마시고 떡먹으니
 더구나 해연하다
 누가아니 의면하리
 행실더욱 망측하다
 문틈으로 손엮보기며
 바람벽의 춤밧기와

등잔압해 불쓰기와
 어룬말삼 깃달기와
 일가친척 말전주와
 절문중년 셔방질과
 알건체 시비하기
 행자치마 불래우기
 제사음식 주권부리
 비케셔셔 이잡기와
 다리일코 방작하기
 대회중의 박장대소
 천석유수 부만밧고
 시부모 걱정말삼
 제행실 그러하니
 인사체면 몰나시니
 발을쿨너 포악하니
 되난사람 시귀하며
 시부모상 만난후에
 ○○의가 법으로
 그래도 안해라고
 저보소 저너편내
 애달다 난들엇디
 떡을찌며 밥을지여
 이웃집 절문택과
 쌀을주어 돈을사며
 천밥을 개를주며
 삼간다락 이간다락
 사이사이 빗슬주며
 밤마다 밤참이요

화로건의 불찌기며
 어린아희 깃발기며
 이웃부인 송보기며
 늘근년 노구질을
 일을삼아 시귀하다
 고은의복 기름칠과
 탕귀대접 그릇깨기
 드러누어 낮잠자기
 바리일코 악담하기
 셔방압해 옷벗기며
 굶난사람 소기기며
 대답하기 심썩한다
 침전인들 엇디알이
 셔방인들 괴일소냐
 삼동내가 요란하다
 불붓난것 조와하고
 문부하고 도라오니
 차마엇디 내칠소냐
 가산을 막졌더니
 세간사리 범절보소
 동내인심 못으들가
 오는사람 가는사람
 너도좃타 나도좃타
 돈을주어 고기사서
 상한고기 개를주니
 어물전이 되어세라
 방물홍정 갖초하고
 날마다 점십이라

서방을 주자하나
 년만하신 늘근부모
 세간사리 못한단말
 제복잇서 저쓰난걸
 왜포당포 모시무명
 돈을쥬어 마전하고
 죽죽이 짝을지어
 명도 만컨마는
 왜화 당화며
 죽죽이 사드려서
 똑금하면 무당불너
 우리내외 금슬조께
 자손만코 부귀하게
 도액하라 오슬쥬고
 양똥쥬며 식쾌돈쥬며
 산에가 제를하며
 불효불목 제사하나
 앵병이며 중병이며
 이럿탕 연첩하니
 냉대하던 늘근부모
 제십사 그러하니
 아들죽어 우난날인
 세간이 탕패하매
 제사음식 차림때의
 양화엇디 면할소냐
 형용이 망츠하다
 문전옥답 조흔노니
 큰악한 조흔집도

걱정소래 괴롭도다
 꿈의나 생각하리
 절통코 애달으랴
 뉘라서 시비하리
 필필이 사드려서
 쌀주어 옷슬지며
 자개함의 너어두고
 전곡을 두루헛쳐
 늦동의 유리병을
 삼간고이 싸아두고
 푸닥거리 성주밧기
 지성으로 살푸리며
 정성으로 미러주소
 장수하라 돈을쥬며
 수저쥬며 식괴쥬며
 절에가 불공하니
 귀신인들 도와쥬리
 니질이며 학질이며
 초상인들 업슬소냐
 상사난들 관계할가
 서방인들 잇슬소냐
 아기딸이 마져가니
 노복인들 잇슬소냐
 정성업시 차려시니
 셋째딸이 마져가니
 양화가 극진하다
 수패하야 내가되교
 불이부터 밧치되니

태산갓치 싸인곡석
 참혹하다 괴똥어미
 폐한움집 으더드니
 다떠러진 베치마
 뒤축업는 혼집신을
 압집의 밥을웃고
 초요기 계우하고
 혼거적 뒤여쓰고
 새벽서리 찬바람의
 다리결뚝 병신이라
 불효모함 하던일이
 ○○○○ 자이가
 딸아딸아 아기딸아
 어미행실 본을بات고
 딸아딸아 우지마라
 여자의 유행함은
 어엿부다 아기딸아

뉘재물이 되단말가
 단독일신 뿐이로다
 먹을거시 잇슬소냐
 이웃집에 비러입고
 짝을채와 으더신고
 뒷집의 장을으더
 불못뎌 찬움속의
 밤을겨오 새와내고
 이집가며 저집가며
 해소소래 요란하다
 역역이 양화되니
 니일보니 분명하다
 시집사리 조심하소
 괴똥어미 생각하라
 어미마음 심난하다
 부모형제 머려서라
 조심하야 디내여라

(박용익 제공)

10 개화기 가사(開化期歌辭)

.....
여기 소개하는 <개화기 가사>는 ‘龍
仁明倫學校 日記’ (1907년도)에 소개
한 것으로, 충군가(忠君歌) 3편, 효
친가(孝親歌) 3편, 응사가(隆師歌) 1
편, 형제가 1편이다.

여 백

忠 君 歌

君臣有義 일루미니 君父업시 뉘메기니 治而敎之 하여씨니 以德調業 大忠人은 以是諫非 흥던이논 그만못흥 蜂蟻들도 忠君흥번 흥옵시다 輔之翼之 禮을줍아 退思補過 흥엇다가 諂諛逢逝 忠아닌가 不變松柏 구둔마음 砲聲如雷 하더라도 赴湯蹈火 흥지라도 예전忠臣 만컨마는 閔桂庭의 血竹느셔 崔勉菴의 義虹빛겨 엇지하여 姦細輩는 文明中華 엇지흥고 어화 우리學徒드라 傳村四方 흥더리도 萬仁遊覽 흥여다가 爲相爲卿 自任흥여 垂拱平章 우리皇帝 大韓獨立 절로되지 天下之人 引領흥니 忠君歌를 高唱흥여	忠君흥번 흥여보세 忠君흥번 흥여보세 忠君흥번 흥여보세 伊尹周公 그아닌가 比于王蠋 그아닌가 君臣之義 分明흥네 어화 우리同志들은 採順其美 흥여보세 匡求其惡 흥여보세 面折廷爭 흥여보세 立節死義 흥여보세 戰陳無勇 孝아닐서 有進無退 흥여보세 大韓節死 빛는도다 四時一色 푸르렀고 白日青天 늑피썼다 貪權勢樂 흥려다가 列疆奴隸 되엇는가 新舊學問 심씨설앙 不辱業箇 흥여보세 器機製造 發達흥세 事君澤民 흥여보세 耕田鑿井 우리百姓 太平乾坤 이아닌가 願立願耕 말일손가 一國同胞 興起흥게
--	--

忠 君 歌

우리大韓 同胞드라
 普天之下 다王土며
 康衢烟月 擊壤歌도
 億兆蒼生 사는功은
 如此君德 갑스흔면
 忠君하세 忠君하세
 父母에게 極孝할리
 忠臣道 非別無事라
 修身齊家 증갈하면
 王蠲之言 本을바다
 烈女不更 二夫하고
 一片丹心 즈은마음
 萬鍾祿을 누린후의
 우리大韓 一天地로
 堯之日月 비취보고
 우리皇上 德澤으로
 傳說가튼 忠心으로
 夷齊가치 字節하여
 富國强兵 忠君인가
 布聖德於 無疆하고
 忠與不忠 何處分고
 嗟我 同志들은
 亡秦事 跡懲하여

忠君一歌 드러보쇼
 率土之濱 다王臣일다
 우리皇上 大德일치
 若非君德 伊誰功고
 寤寐不忘 이질손가
 부더부디 忠君하세
 人君에게 不忠할가
 求忠臣於 孝門일치
 忠君治國 아니할가
 아모조록 忠君하세
 忠臣不事 二君일드
 吾王前에 쏘다불가
 盡忠輔國 하여불가
 舜之乾坤 되여불가
 堯舜之治 하여불가
 高宗가치 化하불가
 名傳千秋 하여보세
 陳善閉邪 忠君일치
 安生靈於 無窮하세
 欺君忠君 이안닌가
 覆宗絶嗣 말게하세

忠 君 歌

唯我青年 同苦들은
 衣我食我 누힘이며
 君禮忠患 멋멋 흠은
 文明하던 우리大韓
 百年五의 治隆호고
 化洽호은 우리蒼生
 今日讀書 무엇하오
 長夜寒枕 죽을씨고
 三角石의 精銳갈며
 偷官竊祿 호지말고
 桂庭血竹 刀柄지여
 勉菴彩虹 浮橋지어
 우리學徒 團體되여
 此時節은 何時節고
 獨立自由 挽回호면
 太平烟月 康衢夜의
 獻祝호세 獻祝호세
 如天聖德 無疆호사

忠君二字 準的合계
 產斯長斯 누공인고
 古往今來 通誼로다
 禮樂法度 壯할시고
 三千里의 土沃호니
 巍巍聖德 왜모루노
 盡忠節目 講磨호세
 白日中天 잇기서서
 漢江水에 憤恨셋세
 見危授命 잇지마라
 倭革穢棘 비여너며
 淫雨狂崖 씨러너세
 挽回權權 호여볼가
 復國호야 忠臣이니
 堯舜乾坤 이아닌가
 絕唱호는 忠君歌로
 皇上前에 獻祝호세
 萬歲萬歲 萬萬歲라

孝 親 歌

語話語話 同胞드라
 父母恩功 生覺호면
 非父母之 血肉이면
 附我鞠我 하섯시니
 父母功德 갑즈호면
 天地間에 重호기는
 泰山갓치 높은恩功
 父母恩功 生覺호니
 人之異於 禽獸者는
 反哺호던 彼鳥也여
 三千之罪 許多컨만
 嗟我同志 同胞드라
 大舜曾子 本을바다
 昏定晨省 호려니와
 養心志도 호려니와
 陸續懷橘도 호여보며
 孟宗竹筍 王祥鯉어
 萬物之衆 最貴로서
 不忘호세 不忘호세

孝親一歌드러보소
 仰心이고 嘆息일서
 이너一身 何處生고
 劬勞心力 호엿도다
 昇天이 罔極도다
 父母박게 더重호가
 一朝一夕 갑홀손가
 사려生前 갑홀손가
 五倫三綱 잇십일세
 羽族三千 孝鳥로다
 罪莫大於 不孝일서
 至誠孝親 호여불가
 父母生前 孝誠호세
 冬溫夏淸 호여불가
 養口體도 아니할가
 子路負朱 하여보세
 出天之孝 分明토다
 不如鳥之 反哺乎아
 孝視二字 不忘호세

孝 親 歌

此身이여 此身이여
 父母遺體 바드지니
 黃金白玉 좃타흔들
 千鍾萬戶 좃타흔들
 頂天足地 뉘功인들
 一出言과 一舉足の
 此身이여 此身이여
 父母哺抱 호오지니
 千金裘와 八珍味로
 此於吾親 불가호며
 體健骨大 뉘심인줄
 一着衣와 一對飯에
 우리同胞 兄弟들은
 父母恩功 갑플진딘
 家之有無 말을말고
 衣服飲食 지를츠즈
 扇枕溫被 호라거든
 承順色養 호라거든
 克諧以孝 호라거든
 一時半點 놀지 말고
 此日一去 不再來라
 人生百歲 舊沒中の
 어화 우리 同志드라
 百行中の 根源이오
 忠君弟長 이노호면
 어화우리 高堂白髮

重敬홀스 此身이여
 劬勞之息 罔極하다
 이몸보듬 더더重하랴
 이몸음심 黃홀손가
 생각호오 생각호오
 父爲母爲 잊지마세
 重敬홀스 此身이여
 養育之恩 罔極하다
 衣我食我 호는스름
 厚於吾親 불가호드
 생각호오 생각호오
 父爲母爲 잊지말게
 一曲我歌 明聽호오
 至誠으로 孝養호세
 盡心竭力 周旋호여
 無飢無寒 기공호게
 漢黃香을 본바드며
 曾夫子를 본바드며
 虞舜氏를 본바드서
 至誠으로 孝養호게
 父母白髮 두렵도다
 事親홀지 몇날인고
 孝親二字 힘을써세
 五倫上의 綱領이라
 立身揚名 결노되지
 萬壽無疆 비더보세

孝 親 歌

어화우리 同胞들아
 父子有親 일너찌니
 父母업시 어셔느나
 愛之育之 ㅎ섯시니
 萬古聖人 大舜됨도
 孔子가튼 大成됨도
 至德要道 이온인가
 그만못ㅎ 々마귀도
 孝親호번 ㅎ읍시다
 酒掃應對 禮을잡으
 日用三牲 孝아니니
 身體髮膚 傷치마오
 推以事實 ㅎ계데면
 推以事實 禽兎 ㅎ세
 庸天因地 ㅎ여설낭
 恨을마오 恨을마오
 事親色養 ㅎ던이느
 八廚其甘 하던이느
 예전스름 一日養을
 世上스름 無道 ㅎ야
 博奕飲酒 業을숨아
 우리同胞 警戒 ㅎ여
 어화 우리學徒더라

孝親호번 ㅎ여보세
 孝親호번 ㅎ여보세
 孝親호번 ㅎ여보세
 孝親호번 ㅎ여보세
 孝아니고 무엇인가
 孝經으로 傳授 ㅎ니
 孝親호번 ㅎ여보세
 反哺報恩 ㅎ엿시니
 어화 우리學校덜라
 昏定晨省 ㅎ여보세
 承順色養 ㅎ읍시다
 立身揚名 쵸홀시고
 以顯父母 그아닌가
 以顯父母 다홀손가
 養親호번 ㅎ여보세
 菽水之養 恨을마오
 西河王延 그아닌가
 隱居董生 그아닌가
 三公으로 不擾히소
 不順辱親 太일네
 惰其四肢 ㅎ엿시니
 孝親호번 ㅎ여보세
 以孝事必 ㅎ여보세

隆 師 歌

어 화 우리同志드라
 君父一體 일우미니
 敎之導之 하섯시니
 傳道受業 하섯시니
 百世之師 되시니는
 繼往開來 하신이논
 그만못호 百그들도
 隆師호번 하여보세
 酒掃應對 禮을줍아
 師嚴道尊 일으미니
 無犯無隱 하여서양
 春風坐了 하던일은
 有體有用 하던學은
 章句諸書 하신이논
 我東先輩 거룩하다
 靜退粟沙 諸先生은
 尊華大義 하신이논
 詢詢余之 하신말씀
 近來學術 恠異하여
 虛誕之說 밋지마오
 似是其非 취알손가
 어 화 우리學徒드라

隆師호번 하여보세
 隆師호번 하여보세
 隆師호번 하여보세
 隆師호번 하여보세
 伯夷之聖 그아닌가
 孔子大成 그아닌가
 先生업시 안되느니
 어 화 우리學徒드라
 愛之如文 하여보세
 敬之如文 하여보세
 服勤至死 하여보세
 明道빛던 그씨로세
 安定先生 그아닌가
 朱晦菴의 공이로세
 예전聖賢 만컨마는
 闡明斯道 하섯느니
 宋尤菴의 공이로세
 誠心奉敎 하여보세
 人心蠱惑 第一일네
 功利之誘 賤함이니
 先生之言 미드시오
 隆師호번 하여보세

兄 弟 歌

一陳高群 彼鴈兮여
 彼微物이 若此커 든
 同本이여 同本이여
 ㅎ여보세 ㅎ여보세
 原隰求矣 ㅎ일스름
 榮華럽ㄷ 榮華럽ㄷ
 式相好矣 好色 ㅎ고
 兄의 몸이 너 몸이오
 食則同案 ㅎ여보고
 妻子好合 ㅎ은後의
 一家兄弟 旣翁 ㅎ면
 兄弟歌를 絶唱 ㅎ여

兄弟行列 分明 ㅎ다
 況乎人이 不如乎아
 우리兄弟 同本이여
 兄弟友愛 ㅎ여보세
 兄弟뵈게 쪼잇던가
 孔門爭死 榮華럽지
 患若賊讐 惡鼻 ㅎ세
 弟의 몸이 너 몸이니
 寢則共被 ㅎ여보세
 兄弟旣翁 되리르다
 四海兄弟 推反 ㅎ더
 不愧鴈兮 ㅎ여보세



■ 자료해설

내 고장 민요의 개관

I.

향토의 지리적·자연적 조건 등에 따라 언어·생활 양상·기질, 그리고 사고 방식조차도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형성되는 바, 이를 <향토성>이라고 한다.

민요는 이같은 향토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향토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산간 지방에서는 주로 초부요(樵夫謠)가, 해안가에서는 어부가 노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향토성 때문이다. 또한 같은 <아리랑>이라고 할지라도 정선 아리랑이 있고, 밀양 아리랑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안삼거리>, <신고산타령>, <몽금포타령>등은 향토 민요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따라서 내 고장의 민요를 발굴 조사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곧 내 고장의 향토성을 규명하는 일이고, 향토 예술을 앙양하는 계기로 더욱 애향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II.

여기에 소개된 자료는 총 190편으로 그동안 수집한 자료 중 용인읍을 중심으로 한 5개면(모현면·포곡면·내사면·이동면·원삼면)의 자료만을 선별한 것이다. 본래 용인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소개하자는 것이 편자의 취지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향토성이 짙은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료의 채집은 가능한 한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간접적인 경우에 있어선 구연자(口演者)의 친족——주로 자녀에게 의뢰하여 기록으로 정리하게 한 다음, 필요에 따라선 재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또한 민요의 음악적 연구가 문학이나 민속학에서 찾지 못한 여러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요의 악보화에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민요가 지니는 향토 고유의 음률, 음감 등이 우리 지방의 향토성 규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방면에 대해선 이 인녕님에 의해 정리될 수 있었다.

Ⅲ.

자료의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 책의 성격상 소개된 자료를 통하여 내 고장의 향토적 특징만을 살피는데 그치기로 한다.

1) 자료의 분포 양상

수집한 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요로 그중에서도 <논매기 노래> <모심기 노래> 등 논 농사와 관련된 것이 지배적으로 많았다. 이는 용인 지방이 내륙 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농민의 60% 이상이 논 농사에 종사하고 있음에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많은 자료가 만가류(輓歌類)인데, 이 역시도 지리적 조건에 연유한 것 같다. 예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으로 알려진 우리 고장은 특히 정몽주, 조광조, 유형원, 민영환, 이한응 등 여러 선현들의 묘소를 비롯, 현재는 집단적인 묘원만도 다른 지방에서보다 지배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이점에 있어 만가류는 우리 지방의 지리적 조건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면

다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내용 및 주제 의식은 민요 일반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략 그 내용만을 정리해 보이기로 한다.

① 노동요의 경우 힘들고 고된 노동이지만 그 노동의 불가피성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위로하는 농부의 소박한 생활상을 엿볼수 있으며, 자위적이고 조흥적(助興的)인 내용을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음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② 성조가는 조흥적이고 기원적(祈願的)인 것이 특징인데, 주로 조흥성(助興性)은 운율과 여음(餘音)의 형식으로, 기원은 부귀다남(富貴多男), 충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내방요의 경우, 가난한 살림에서의 시달림, 노동의 과중, 고부간(姑婦間)의 갈등, 시집살이의 고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④ 연정요의 경우는 입을 그리워하고 고독을 달래는 남녀간의 연민의 내용에 탄식을 곁들이고 있다.

⑤ 만가류에 있어선 상사(喪事)를 돕는 이들이 상주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인(故人)의 명복을 비는 한편, 인간 본연의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음이 일관된 내용이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죽음>을 단지 탄식과 좌절감에서 염세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음의 새로운 삶을 위해 현재의 슬픔을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석가여래·무당·만신·장님·충효 등의 어휘 및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고유의 무격신앙(巫覡信仰)과 불교·유교 사상이 혼합되어 기조(基調)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3) 형식 및 기교면

① 노동요 및 만가는 한 사람이(메기는 사람, 先唱者) 노래를 선창하면

다른 여러 사람이 여음(후렴)을 따라부르는 선후창(先後唱)의 〈선소리〉 형식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같은 노동요라 할지라도 〈지계동발〉 〈꿀노래〉 등은 모두 독창 형식으로 되어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② 운율은 3·3조, 3·4조, 4·4조, 4·5조, 6·5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4·4조가 기본이 되고 있다.

③ 민요의 형식적 특징 중 향토성이 가장 뚜렷한 예로 〈여음(餘音)〉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조흥적(助興的)이고 조율적(調律的)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지방에서 흔히 살피볼 수 있는 여음 가운데 대표적인 예만을 들어 보면, 논매기 노래의 “어—흙차 째었네”, “에—얼떨떨 상사뉘”, “에에이 들레오”, 지경노래의 “에허라 지경이야”, 연정요의 “에헤야 어하 어여라 난다 디여라 허송 세월을 말아라”, “닐릴리 너리구 절싸 말아라”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가운데 논매기 노래의 “어하 어흙차 째었네”, “에에이 들레오”와 같은 여음은 우리 지방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중요한 자료라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논매기 노래의 여음일지라도 안성 지방에서는 “어하 어기떨떨”으로, 여주 지방에서는 “단허리”, “꿈았네”, “어후향”, “우야에호”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천 지방에서는 “대허리”, “저하”, “오하 오올려 가세” 등으로 노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우리 지방의 특수한 노래로서 〈꿀노래〉, 〈지계동발〉, 〈홀아비 소리〉, 〈 째었네 타령〉, 〈 들레 타령〉, 〈 세상달꿈〉 등을 들 수 있으며, 〈 꿀노래〉, 〈 지계동발〉은 다른 지방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어—흙차 째었네”라는 독특한 여음을 구사하는 〈 째었네 타령〉은 내 고향 특유의 노래인 것이다.

(洪 順 錫)

자료 제공자 명단

지 역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주 거 지
용인읍	강 옥 수	여	44		운학리 장재미
	고 병 주	남	50	농업	호리 365
	고 미 옥	여	12	학생	호 2리
	고 제 순	남	58	농업	//
	금 인 영	//		//	고림리 임원
	김 복 규	//	14	학생	해곡리
	김 석 봉	여	52	농업	//
	김 순 철	//	85		마평 삼막곡
	김씨 할머니	//	84		마평리
	김 연 동	남	13	학생	김량장리 서구 331
	김 영 배	//	52	농업	호리 호등
	김 익 채	//	49	//	// 365
	김 정 순	//	75	//	남리 300
	김 진 순	여	49		남리 75
	김 지 환	남	56	농업	호리 365
	문 태 현	//	53	행상	김량장리
	박 광 원	남	53	농업	유방리 352
	박 상 준	//	45	//	김량장리 서구
	박 중 은	//	45	//	유방리 무수막
	신 동 회	여	57	//	호리 예직이
	신 언 예	//	57		김량장리 서구
	양 승 선	여	56	농업	역부리
	유 석 회	남	50	//	마평리 담막
	이 남 윤	//	76	//	김량장리 서구
	이 담 자	여	53		남리 394
	이 봉 식	남	61	농업	남리 옥현
	이 심 중	여	79		김량장리 서구 90

지 역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주 거 지
용인읍	이 시 예	여	11	학생	남리 300
	이재분모친	//	42	//	김량장리 서구 오류동
	이 종 태	남	56	농업	운학리
	이 흥 순	여	65	//	삼가리
	장 성 훈	남	63	//	김량장리 중앙구 133
	장 의 환	//	64		삼가리 먹조현
	조 병 재	//	42		마평 신점 658-11
	조 영 래	여	63		역북리 중간동
	천 영 숙	//	62		고림리 임원 195
	최 종 예	//	67		김량장리 동구
포곡면	권 내 병	남	70	농업	둔전리
	권 영 철	//	43	//	삼계리 도사
	김 병 성	//	48		전대리 311
	김 석 정	//	55	농업	마성리 삼전
	박 상 운	여	71		둔전리
	성모식당옆집노인				두계리
	송 재 은	여	42	농업	유운 1리 소운
	양 재 옥	남	52	//	영문리 427
	이 재 천	남	62	//	신원리 2리
	전 만 길	남	63		매산리 진해촌
모현면	임 정 순	여	77		전대리
	홍 언 년	여	71		마성 삼전 28
	공 석 찬	여	69		매산 1리 중촌
	김 문 영	//	85		초부리 하초하
	김 삼 남	남	77		능원리
	김 성 기	여	56		일산리 월촌
	김 영 길	남	58	농업	//
	김 찬 기	//	75	//	초부리 하초하(새래)
	박 보 화	남		//	왕산리 독산
	박 재 근	남	53	//	매산리 진해촌

지 역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주 거 지
모현면	이 문 복	여	53		초부리 하초하
	이 상 용	남	63	농업	일산리 235
	이 용 백	//	81		왕산리 789
	이원태 외	//		농업	왕산리 관청
	문 병 찬	//	65	//	왕산리 독산
	전 만 길	남	68	//	매산리 진해촌
	정 재 화	남	76		매산리
	조 찬 수	//	62	농업	일산리
이동면	황 재 하	//	53	//	// 중천
	강 신 길	여	57		천리 노루실
	권 학 일	남	56	농업	// 샘골
	김영길모친	여			서리 중덕
	김 은 성	남	51	//	천리 노루실
	박 귀 분	여	56	//	목리
	박 찬 경	여	13	학생	서리 중덕
	소 진 욱	남		농업	서리 불당곡
	손 광 득	남	85	//	목리 장촌
	신 명 식	남	65		천리 584
	신 순 갑	여	66		덕성리 삼파동
	양 을 순	여	72		천리 584
	이 근 영	남	45	사원	천리 노루실
	이 동 례	여	57		목리 한덕
	재용 모친	여	55		천리 584
	지 영 식	남	54	농업	// 샘골
	내사면	홍 성 우	//	51	//
곽 정 식		남	60	//	주북리 입원
공 회 석		//	39	//	//
김 복 영		//	56	//	양지리
김중찬부친		//	69	//	정수리
박 용 익		남			식금리

지역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주거지
내사면	안용석	남	79	농업	제일리
	안천희	//		//	제일리 단매동
	오민숙	여		학생	남곡 2리 평대
	유내석	남	59	농업	평창리 범밭
	이창	남	62	//	추계리
	임옥순	여	45	//	정수리
	임원화	//	24	사원	주북리 임원
	정덕순	//	74		제일리
구성면	이병직	남	65	농업	중리 260
	최용순	여	23	//	마북리
기흥면	황영수	남	49	//	공세리 탐안
남사면	김정수	여	57	//	창리
	김정순	여	50	//	창리
	배정근	남	68	//	완장리
원삼면	김영식	여	47	//	사암리 사전
	오진근	남	62		죽능리

※ 여기에 기재된 제반사항은 자료채집 당시의 상황임.

용인문화원 임원 및 향토문화연구회원

용인문화원 임원

원 장	김 정 근				
부 원 장	김 학 로				
이 사 장	이 학 린				
이 사	이 대 영	조 광 수	김 명 환	박 용 익	
	김 인 래	강 명 윤	이 영 우	박 재 성	
	김 승 영	김 중 학			
감 사	심 현 욱	채 준 목			
총 무	정 동 근				

향토문화 연구회원

회 장	박 용 익	자문위원	강 창 희	맹 인 재	
			이 일 녕		
총 무	최 희 면	특별회원	김 덕 환	구 자 역	
섭 의	박 재 성		나 진 우	방 영 덕	
기 록	박 민 응		이 민 영	이 명 해	
감 사	박 종 용		임 순 만	윤 진 섭	
	김 춘 자				
연구위원	권 대 섭	이 인 영	전 기 원	정 양 화	
	홍 순 석				

향 두 가

M = 90

느리게



1. 가 네 가-네 - 나는-가-네 북망-산-천에- 나는-가-네
 3. 명 사 십-리 -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서러워마-라
 5. 우 리 인-생 - 한번-가-면 음이-나-나-- 싹이-나-나



어 하 어— 허이야 어 허-이 어허이야



2. 북 망-산-천이 멀다-더-니 대 문-밖-이- 북 망-일-세
 4. 명 년-춘-삼월 돌아-오-면 너 는-다-시- 피 련-만-은
 6. 십 년-가-고 - 백년-가-도 일 자-소-식- 끊 어-지-네

희방아 선 소리

M=90




1. 어 화 세 - 상 벗 님 - 네 야
3. 흥 안 백 - 발 가 까 - 우 니

후렴



에이 히 이 리 달 - 고 -



2. 젊 있 - 다 - 고 - 자 랑 을 마 라
4. 인 생 - 살 - 이 - 무 상 - 이 타

■ 이인영(李仁寧)

1943년 충남 온양 출생

태성고등학교 졸업

현재 용인군청 재직, 향토사 연구가

용인향토문화연구회원

<편저> 향토문화와 전통(1981) (공편)

천연 242호 까막따따구리 보호 지정, 등 향토문화재 관제업적 다수

■ 홍순석(洪順錫)

1955년 용인읍 김량장리 출생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동 대학원 졸업

전 배성고등학교 교사

현재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재직

용인향토문화연구회원

<편저> 龍仁郡邑志(1982)

<논문> <韓國佛寺緣起說話研究>, <挹翠軒朴闇研究> 등

향토 문화자료 ②

내 고장 民謠

(비매품)

1983년 12월 15일 인 쇄

1983년 12월 20일 발 행

엮은이 이인영·홍순석

발행인 김 정 근

인 쇄 株 曠 文 化 社

발행처 龍仁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會